



꿈꾸고, 행동하고, 창조하라

**조합을 하면  
입체적인 발상이  
가능해진다**

세상을 밝히는 발명과 특허 이야기

# 발명특허

**VOL.446**  
**2014**  
**MAY·JUNE**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발행일 | 2014년 6월 5일

발행처 |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발행인 | 김광림

편집·기획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팀 박선민(02.3459.2727) www.kipa.org

편집디자인·제작 |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 CONTENTS

### 꿈꾸고, 행동하고, 창조하라

#### 06 IMAGINATION

발상력,  
서랍의 수를 늘려 응용하라

#### 08 ACTION

발명, 내일을 견인하다  
- 제49회 발명의 날

#### 12 CREATION

정서를 점유하는 작업, 디자인을 말하다



## Cover Story

- ◆ 재료와 아이디어를 조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뇌의 자연스런 현상이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합을 체계적·순차적으로 진행해 본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체험해서 그것을 조합시키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연속'이 창의적 생산의 질을 높인다는 단순한 진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

### IP FOCUS

- ① 특허동맹으로 본 특허경영 이야기
- ② 뉴턴의 사과 - 특허로 경제를 말하다
- ③ 직무발명,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다
- ④ 특허로 만나는 우리약초

32

### 발명가 사람들

우리 조직에 맞는 바람직한  
건강 상태를 점검하다

36

### 무한상상 인터페이스

전국유일 'IP 창조 ZONE' 거점기관  
창조경제 성과 창출 시동 건다  
- 강원지식재산센터

40

### 융합 콘서트

터치는 살아있다

42

### 지식 더하기, 기술 나누기

진정성, 전통성 담은 우리 고유 브랜드  
'선삼仙蔘'의 비밀 - (주)진생사이언스

46

### 생활 속 발명이야기

그 남자, '유리'로 손톱을 탐닉하다

48

### IDEA 공작소

즐거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52

### 글로벌 동향

56

### IP NEWS

60

### KIPA NEWS









## ‘안전거리유지에 차선 변경까지’ 무인자동차(Self Driving Car)의 등장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건 섬세하고 정확한 조작, 순간순간 빠른 판단력을 요구한다. 차량 주행 시 도로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는 그 종류가 다양해서 매 순간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운전석 시트 위 운전자에게도 자유를 주려하고 있다. 먼 미래 일 같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자동차’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무인자동차 기술개발의 대표주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기업인 ‘Google’이다. Google의 무인자동차는 테스트 드라이브를 통해 지구의 12바퀴 거리인 42만 km를 무사고로 주파했다. 이 무인자동차의 핵심기술은 지붕 위에 설치된 Laser range finder로, 이를 통해 레이저 측정값과 고정밀의 주변 환경 지도를 융합한 정보로 도로 상의 각종 상황을 접수함으로써 무인자동차가 운행된다. 구글 수석 엔지니어 크리스 엄슨은 “2017년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불과 3년 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무인자동차 솔루션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심현철 교수(항공우주공학과)가 이끄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개발한 무인자동차가 시속 140km로 달리는데 성공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업체들은 무인자동차를 통해 빈번한 교통사고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며 무인자동차 도입은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안전화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루한 장거리 운전을 자동차에 완전히 일임하면서도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졸음운전 사고 예방이나 운전피로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인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누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의 자동차 연구팀장인 스벤 바이커는 무인자동차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발상력, 서랍의 수를 늘려 응용하라

## ◆ 조합을 하면 입체적인 발상이 가능해진다 ❶

최근 '꿈꾸고(Dream), 만들고(Design), 누리는(Play)' 것을 모토로 한 동대문디자인 인플라자(DDP)가 개관했다. 코브라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DDP는 비정형 건축의 세계적인 대가인 이라크계 영국 여성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작품이다. 그녀는 대한민국 서울 중심에 UFO를 연상시키는 역사적 건물을 탄생시켰다. 필자 역시 과거 건축을 전공해 다양한 건축설계를 하던 시절, 자하 하디드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DDP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그녀의 뇌구조는 어떠한지, 그 독특한 발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글\_김영록 JIU 융합인재사관학교 대표 · <융합인재의 조건> 저자

**꿈꾸고(Dream), 만들고(Design), 누리는(Play)** • 건축은 곧 융합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설계를 하다보면 수많은 건축 용도를 접하게 되는데, 기술과 자연, 인간을 융합시켜 창조적인 발명품을 탄생시킨다. 필자 또한 건축에서 융합의 영감을 받아 대학에서 융합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번 DDP를 보면서 자하 하디드의 해체주의적 사고가 발명의 근간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자하 하디드의 비정형 건축이 주는 문화적 충격은 생각보다 크다. 개관하자마자 3차원 비정형 건축으로 주목 받고 있는 DDP는 기존 건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셨기 때문이다. 발명과 창조는 고정관념을 버리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노자의 '비움의 법칙'은 그릇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고 했다. 새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비우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월 속에 잡동사니들을 담고 있는 기성세대들보다 아이들의 창의력이 우수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자하 하디드는 아메리칸 대학교 베이루트에서 수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후 런던에 있는 건축협회학교(AA School of Architecture)를 다녔다. 1980년에는 런던에 독립 건축사무소를 차렸고 건축협회 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쳤다. 이외에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의 단게 겐조 석좌교수(Kenzo Tange Chair),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건축학부에서 설리번 석좌교수(Sullivan Chair) 등을 역임하며 여러 교육기관에서 건축을 가르치기도 했다. 또한 독일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Hamburg)에서 방문교수로 일했고, 미국인문학회의 명예 회원이며, 현재 빈 응용예술대학교 수로 재직 중이다. 자하 하디드는 여러 국제 건축 공모의 입상자이면서 건축 이론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이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소품, 제품 및 인테리어, 패션 등 해체주의적 디자인으로 영역을 넘나들면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있다.



# The Combination Enables Three-dimensional Idea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발명의 시작점** • 원래 건축이라는 것은 튼튼하고 견고해야 하며 쓰러지지 않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에 대한 상식이다. 하지만 해체주의 건축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형이상학적 모양을 하고 있다.

발명에서도 가장 핵심 포인트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조합하고 기술을 더해 상품화해내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판을 뒤집는 사고가 필요한데 그것이 해체주의적 관점에서의 융합적 사고가 아닐까 한다. '융합적 사고'란 다양한 점(Dot)을 연결·조합하는 것이라고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우리는 공학과 예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발명품을 원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해체주의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발명'의 사전적 정의는 전에 없던 물건이나 방법 따위를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것인데 해체주의는 파괴 또는 해체, 풀어헤침의

행위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경향이 강한 예술사조를 말한다. 정형적 질서를 강요하는 기존의 경향을 현실성이 없는 가식의 세계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된 일종의 반 문명 양식운동인 것이다. 이는 1960년대 이후 논의되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회화, 건축, 패션 등 창조적 분야에 있어 강렬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문화 이론이다.

해체주의를 일부 부정적 이미지로 바라보는 학자와 예술가도 많지만 창조경제시대에 이를 뛰어 넘어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된 생각이다.

오늘날은 산업 생태계에서 모방을 통해 변형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어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가져다주는 발명의 본질은 융합적 사고를 통해 인류에 최초로 선보이는 걸작품이어야 할 것이다. **발명특이**



# 발명, 내일을 견인하다

◆ 조합을 하면  
입체적인 발상이  
가능해진다 ②

## 제49회 발명의 날 & 2014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

1957년을 시작으로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가를 격려해온 ‘발명의 날’이 올해로 49회를 맞았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들의 시상을 통해 국민의 발명익식 고취 및 발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2014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가 함께 개최돼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번 대회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결합된 다양한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다.

01



08

**김광림 회장, “발명과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시대’를 앞당기겠다”**

· 지난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제 49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발명으로 여는 창조경제, 지식 재산으로 맺는 경제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명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기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발명인 및 발명유공자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민 특허청장,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등 4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훈·포장, 대통령표창 등 총 79점의 상상이 이뤄졌으며, 작년 한 해 최고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으로 본보기를 보여준 발명가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발명왕’ 상상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여느 때와는 달리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차분하게 시작했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국내 대학에서 개발한 고정밀 위성항법장치 기술이 탑재된 구명

조끼가 선내에 비치돼 있었다면 구조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발명과 기술은 안전과 직결돼 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안전을 지켜내는 발명과 기술이 산업과 제품에 접목된 ‘스마트 안전’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300만 발명인을 중심으로 시시각각 발생하는 주요 이슈해결에 적합한 기술공급과 창조경제에 부합한 질 높은 콘텐츠 생산을 목표로 지식생산이 한국사회의 기반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발명인 여러분의 지식재산과 발명에 대한 열정이 확산되어 대한민국에 창의적 정신과 기운이 일렁이고 그 기운이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전했다.

01 발명의 날 행사에 앞서 개최선언과 국민의례가 이뤄졌다. 02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발명을 이끌 올해의 주역들!** • 이날 기념식에는 발명가, 발명장려, 발명유공 분야에 산업훈·포장 14개 등 총 79개의 포상이 주어졌다.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은 전기자동차 부품과 스마트 그리드 등 미래유망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로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공헌한 LS산전(주)의 구자균 대표이사가 영예를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친환경 콘크리트 제품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개발로 업계에 본보기가 된 합작회사 동서콘크리트의 이강협 대표사와 메모리 저장장치 관련 특허 110건 등록으로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삼성전자(주)의 공준진 마스터가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에는 특허 및 R&D업무를 이끌어 특허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기업 최다인 2,429건의 산업재산권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한국전력공사 김병숙 이사가 선정됐다.

이어 홍조근정훈장에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지식재산권법 교수로 역임하면서 지적재산권법 등 수많은 논문과 저서 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제도, 법제의 개선 및

발명진흥에 이바지한 한양대학교 윤선희 교수가 선정됐다. 또한 철탑산업훈장에 (주)세종이엔씨 민경남 대표이사와 코리아햇 픽스 안기풍 대표가 선정됐으며, 석탑산업훈장에 (주)웍스 이형철 대표이사, 옥조근정훈장에 국립농업과학원 한귀정 농업연구관이 선정됐다.

산업·근정포장에는 (주)코리아하이텍 여승훈 대표이사, ㈜클렘본 최성훈 대표이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형준 책임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이두성 부장, 영동대학교 황재호 부교수가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에는 유버(주) 강용후 대표이사, 한국전기연구원 박영진 책임연구원, 특허법인 씨엔에스 손원 대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김창훈 단장, ㈜세종파마텍이 각각 수상했다.

발명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올해의 발명왕'의 영예는 현대자동차(주)의 심휴태 책임연구원이 차지했다. 심휴태 책임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전륜 6속 자동변속기의 독자적 구조 및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에 성공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양적 성장 및 획기적인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자동변속기 분야의 기술지립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해외 수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전륜 6속 자동변속기는 기존의 5속 자동변속기에 비해 변속비와 전달 효율이 우수해 연비를 개선할 수 있고 단순화한 내부구조로 작업공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웍스 이형철 대표는 "다양한 정보와 결합한 I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통령 표창의 유버(주) 강용후 대표는 "향후 지속적인 원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올 연말까지 추가로 50여 개의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 및 등록할 예정"이라며 "지식재산권을 강화해 국내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강소기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된 심휴태 책임연구원은 "해외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보다 시작이 늦다보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다. 회사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고, 함께 한 팀원들도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현대차가 세계 최고가 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그는 발명왕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가까운 일부터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편하게 아이디어와 특허를 제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05



06



07

큰 걸림돌은 비정상적인 규제와 관행이다. 앞으로 발명인들이 양질의 발명특허를 쉽고 빠르게 창출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색 있는 여성 아이디어 제품들이 한 곳에** · 이날은 여성발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발명품의 홍보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시박람회사인 <2014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도 함께 개최됐다. 우간다,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독일 등 총 26개국 300여 점의 여성발명품들과 국내 약 110여 개사의 여성기업인들의 특허 및 아이디어 제품이 전시됐다. 아울러 국제적 IP 이슈 논의와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됐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함께 테이프 커팅으로 개막됐다. 김영민 특허청장,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 드보라 라잘 멕시코 창조혁신위원장, 안나 모라워 맨스필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장, 한미영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들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시장을 관람했다.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제품들이 전시되는 박람회이만큼 볼거리, 즐길거리 또한 다양했다.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 현황을 파악해주는 ‘스마트 아이스’, 뜨거운 물만 있으면 간편하게 죽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바로죽’, 양금으로 장식 가능한 새로운 스타일의 ‘떡케익’ 등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발명특허

03 (세계여성발명대회·여성발명품 박람회)에는 정부기관과 세계 각국의 IP 관련 여성 지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04 (왼쪽부터)김영민 특허청장,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조은경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이 전시회장을 함께 둘러보며 여성발명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05 올 한해를 빛낸 발명인들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06 발명의 날 기념식에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발명인 및 발명유공자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격려하기 위해 발명 유관 단체장 등 40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07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 정서를 점유하는 작업, 디자인을 말하다

조합을 하면  
입체적인 발상이  
가능해진다 ④

##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

산업화가 발 빠르게 일어나던 1960년대. 당시 중학생이던 한 소년은 친구 집 책장에서 우연히 잡지 한 권을 발견했다. 책상은 그저 네모났고 의자는 각진 사물로만 인식하던 소년은 잡지를 접한 후 책상도 둥글 수 있으며 의자에도 곡률이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이거다, 싶었다. 아직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온전히 파악조차 못한 십대 소년이었지만 미래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몸과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다. 훗날 소년은 세계의 리더 빌 게이츠로부터 “디자인계의 지도자”라는 극찬을 받았다. 한국 이 낳은 세계적 디자이너,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의 이야기다.

**세상에 없던 그만의 스케치** • 서울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그는 본격적으로 디자인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행을 택했다. 1950~60년대 당시 한국에서는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졸업 후 바로 유학길에 올랐지만 청년 김영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고국에서 내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었다. 그 꿈을 향해 김영세 대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출발은 메모였다. 호주머니에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수첩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디자인을 스케치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이미지가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그림으로 이미지화된 ‘이노(inno)’라는 단어였다. 낯선 땅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이노베이션(innovation)’이라는 단어를 마음 속 깊이 새긴 그였다. 늘 그 단어를 되새긴 탓일까. 세모와 네모, 동그라미가 결합된 ‘inno’라는 글자가 머릿속을 뱅뱅 맴돌았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김 대표는 떠오른 이미지를 수첩에 그린 후 지갑에 넣고 다녔다. 훗날 자신이 세울 회사의 로고는 그것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언젠가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언어보다 그림으로 먼저 떠올라요. 시각화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제 수첩에 스케치를 해놔요. 제겐 그게 곧 메모죠. 이번에도 로봇청소기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는데 그 작업 역시 이미지화를 거쳐 나왔어요. 하트모양으로 시작했지만 도출된

디자인은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삼각형으로 디자인된 로봇청소기가 효과면에서도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기존 원형 청소기보다 코너의 먼지들을 잘 흡입했거든요. 결국 새로운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셈이에요. 직원들에게도 이야기 합니다. 결국, 디자인은 발명이라고요.”

기능적 차별성과 시각적 차별성을 모두 강조하는 그는 둘 사이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제품의 디자인을 고려하다보면 결국 기능도 개선되기 때문이다.

“서로 넘나드는 거죠. 기능적인 차별성을 고민하다보면 시각적인 디자인에서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디자인을 고려하다보면 기능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아요. 상상하고 싶은 상품을 컨셉화하는 도중 차별화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뇌의 오른쪽과 왼쪽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사용한다고 해야 할까요?(웃음)”

01 김영세 대표는 디자인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IDEA에서 금·은·동을 휩쓰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1986년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최초 디자인 회사를 설립한 사실로도 유명하다. 02 이노디자인의 헤드폰 ‘이노웨이브(INNOWAVE)’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2014 iF 디자인 어워드’ 프로덕트 디자인 오디오/비디오 부문에서 본상(Winner)에 선정됐다.



01



02



**입체적 사고의 출발, 이모셔널 로직(emotional logic)** • 좌뇌와 우뇌의 자유로운 사용, 기능과 디자인을 넘나드는 유연함. 그는 이를 일컬어 '이모셔널 로직(emotional logic)'이라고 말했다. 그저 막무가내의 감성에 기대어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갖는 감성적 논리를 활용해 디자인을 한다는 의미다. 실용화 패턴과 심미적 패턴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것이 있어야 상품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제가 생각하는 산업디자인이란 엔지니어링(engineering)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그 지점부터 시작하죠. 물건을 디자인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품의 기능과 사용자 측면을 충분히 고민한 후 디자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용자를 인식하지 않은 디자인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니까요. 과거는 기술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디자인은 패키징 정도로 인식되면서 가장 나중에 작업이 이뤄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죠. 제품 기획의 초반부터 디자인이 함께 가야 합니다. 때론 예술적 상상력이 기대 이상의 개발을 가능케 하잖아요.”  
 조화롭고 입체적인 사고가 담긴 셈이다. 산업디자인을 예술의 시각으로만 접근한다면 사용자와 동떨어진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공학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면 예상 외의, 그러나 심미적으로도 감탄할 만한 디자인이 도출된다.

그는 기업과 함께 하는 산업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 '프라블럼 아이덴티티(problem identity)'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그는 이노디자이너의 디자이너들에게 '사용자가 되라'고 조언한다. 실생활에 들어가 제품의 사용자가 되면 개선할 점을 찾을 수 있고 획기적인 발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마주앉은 순간부터 제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 고민없이 나오는 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 가시적인 무언가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집중이 필요해요. 더불어 계속 그것을 고민해야 하고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 그 속에 혁신이 있다** • 결국 혁신에 답이 있다. 하지만 한 부분만 생각해서는 차별적인 발상이 나오기



03



04

힘들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보다 거시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한 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에 주목해야 할 때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와 B라는 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디자인은 전문 분야를 두 개, 세 개씩 엮어나가요. 하나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렵거든요. 이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기도 하죠. 곳곳에 존재하는 기술 베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 전에 없던 혁신과 가치가 나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디자인적 사고가 도출되는 거죠.”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이 기술처럼 폐쇄적이지 않기에 제3자에게 도용되거나 침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디자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를 처음 접했을 때 문득 생각난 것이 지식재산권이었다. 창조경제로 성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크리에이터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문화’가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과연 우리사회에서 창작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정당한 자유와 온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사회가 모방심리나 지식재산권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남의 지식재산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방에 대한 잠재적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사회는 디자이너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해주고 디자이너는 사회에 좋은 디자인을 제공해야 한다. 좋은 디자인을 위해, 디자이너는 유저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디자인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마켓 셰어’보다 ‘마인드 셰어’가 더 중요하다는 김영세 대표. 그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더 크게 점유하는 것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듯, 디자인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곧 디자인은 사랑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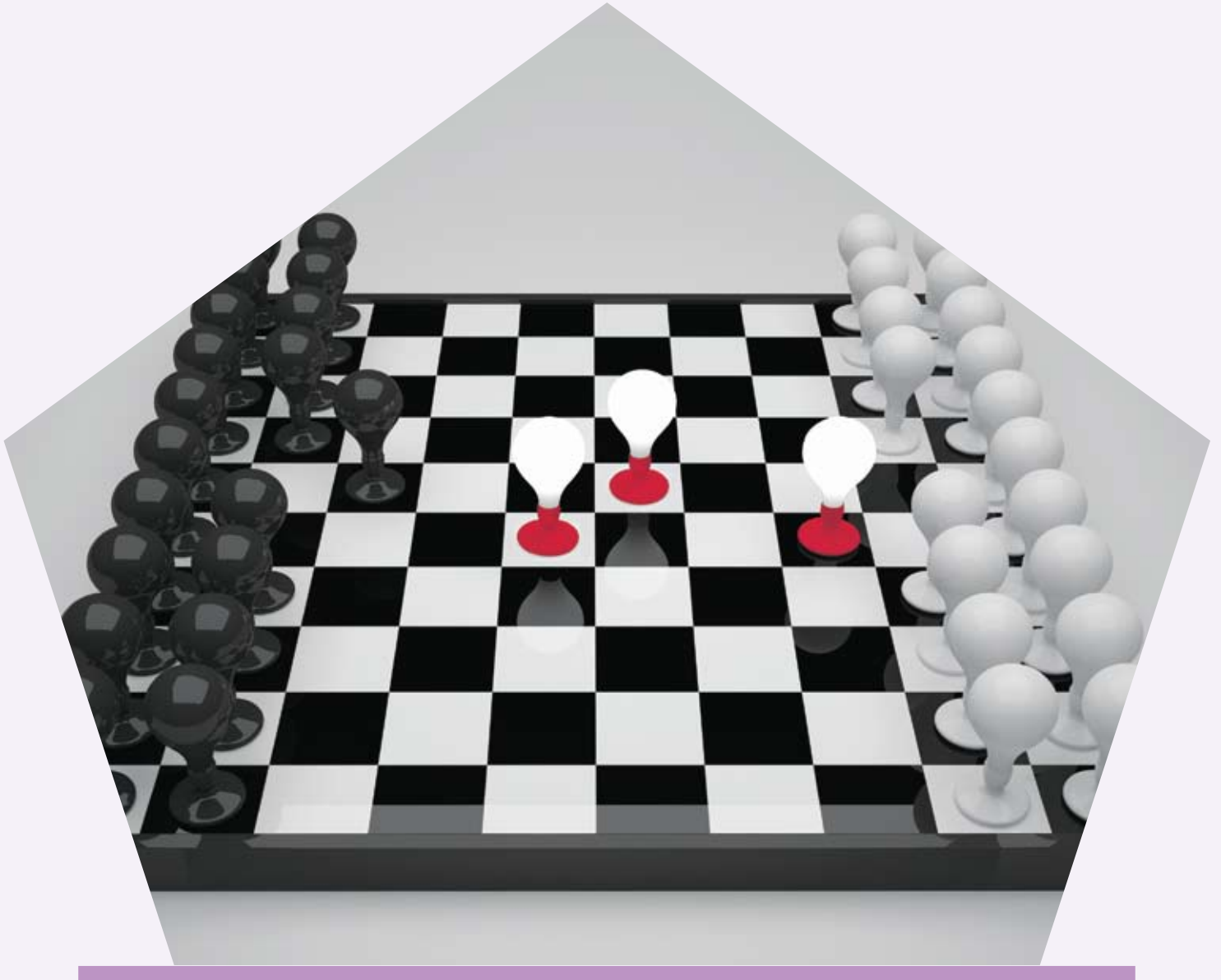
디자인 계의 구미를 꿈꾸는 이노디자인.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을 위해 김영세 대표는 오늘도 사랑하는 이를 위한 스케치를 그리고 있다. **별명특어**



05



**03. 04** 김영세 대표는 “산업디자인을 예술의 시각으로만 접근한다면 사용자와 동떨어진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공학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면 예상 외의, 그러나 심미적으로도 감탄할 만한 디자인이 도출된다”고 말한다. **05** 그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수첩에 스케치를 해놓는다. 사진은 현재 작업 중인 로봇청소기 디자인 스케치이다.



## IP FOCUS 01

# 특허동맹으로 본 특허경영 이야기



최근 삼성전자와 구글, 시스코가 3자 특허동맹을 맺었다는 뉴스가 화제였다. 동맹이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쳤다는 것인데 IT분야의 최대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세 회사가 동맹을 맺었다고 하니, 과연 그들이 느끼고 있는 위험이 무엇이며 그로부터 얻고자 하는 이득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들의 동맹에 끼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일지 궁금해졌다.



**삼성·구글·시스코, 크로스라이센싱 체결** · 세 회사의 동맹은 '크로스라이센싱'이라고 하여 중장기적으로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특허와 앞으로 출원할 특허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특허 동맹이다.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대략 10만 건 정도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제조관련 특허 보유기업이고, 구글은 인터넷 분야와 신기술 분야에서, 시스코는 통신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만한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IT공룡이다.

이러한 거대기업들이 동맹을 맺은 것은 앞으로 가장 뜨거운 시장이 될 '사물인터넷'과 같은 분야에서 3개사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장 자체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애플과 같은 또 다른 거대기업들과의 특허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특히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들로부터의 수많은 특허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가 가장 크겠지만 미래의 특허까지 공유하는 것은 미래의 시장 지배를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은 보는 사람들이 지칠 정도로 지속화되고 치열했다. 과연 특허분쟁이 기술발전과 혁신을 도와주는 것인지, 오히려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한 1조에 가까운 손해배상 판결액과 이어지는 2차 소송, 그밖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별적인 소송 등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대 제조기업간의 특허소송은 일방적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이 물고 물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회의적인 것은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생산활동이나 제조기술 없이 특허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특허괴물이라고 하는 용어의 어감 자체가 부정적이고 그 행태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애플과 같은 제조회사에서 이러한 회사를 만들어 많은 특허공격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RIM 등이 연합하여 설립한 '록스타비드코' 같은 특허관리전문회사는 최근 중국의 화웨이로부터 로열티를 받아 내고 삼성전자, 구글 등과의 특허분쟁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거대 IT제조기업들은 적으면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특허소송을 벌여오면서 기업생존의 가장 큰 변수로 특허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들 기업보다는 이에 대하여 '강 건너 볼' 보는 듯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ORACLE®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엄청난 특허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대기업들에게 작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무방비 상태의 가련한 상대가 될 것이다. 물론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리눅스의 GNU나 많은 오픈소스 정책과 같이 특허개념들이 발전되어 왔지만 점차 거대기업들의 특허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픈소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든다** • 그동안 인터넷 분야나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특허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큰 돈벌이가 되지 않았기에 잠시 보류된 것이지 결코 특허분쟁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1년 기준, 페이스북과 같은 대표적인 IT기업의 특허보유 건수가 12개, 트위터나 징가, 링크드인과 같은 기업이 2개 정도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드웨어와 전통적 IT기업들이 수천에서 수만 개에 이르는 특허로 무장한 반면, 지식재산과 가장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단지 몇 개의 특허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우면서도 그 시사점을 생각해보게 한다.

인터넷과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비즈니스모델 특허가 중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과거 MS와 Oracle로 대표되는 독점적 라이선스 정책의 기업들은 특허와 시장 독점을 통해 막대한 부와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존 경제체계의 수확체감 법칙과는 정반대인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고, 강력한 잠금(Lock-In)을 통해 승자독식의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즉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무형의 자산을 통해 추가적인 원가투입 없이 생산을 폭발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제품 사용에 익숙해지고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제품에 종속되는 경향이 크게 돼 거의 독점적인 시장지배가 가능해 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기업의 시장독점은 특허가 갖는 '독점을 보장하기 보다는 기술의 사회적 공헌을 보장하는데 있다'라는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며, 소프트웨어와 같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는 네트워크 효과를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래의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픈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개방적이고 공유의 정신을 존중하는 다양한 라이선스 정책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수정, 재사용,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사회 전체적인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키고 이러한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과 다시 나누게 하는 상생적인 라이선스 정책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라이선스 정책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백 개의 라이선스 유형이 존재할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크게는 GPL(Gene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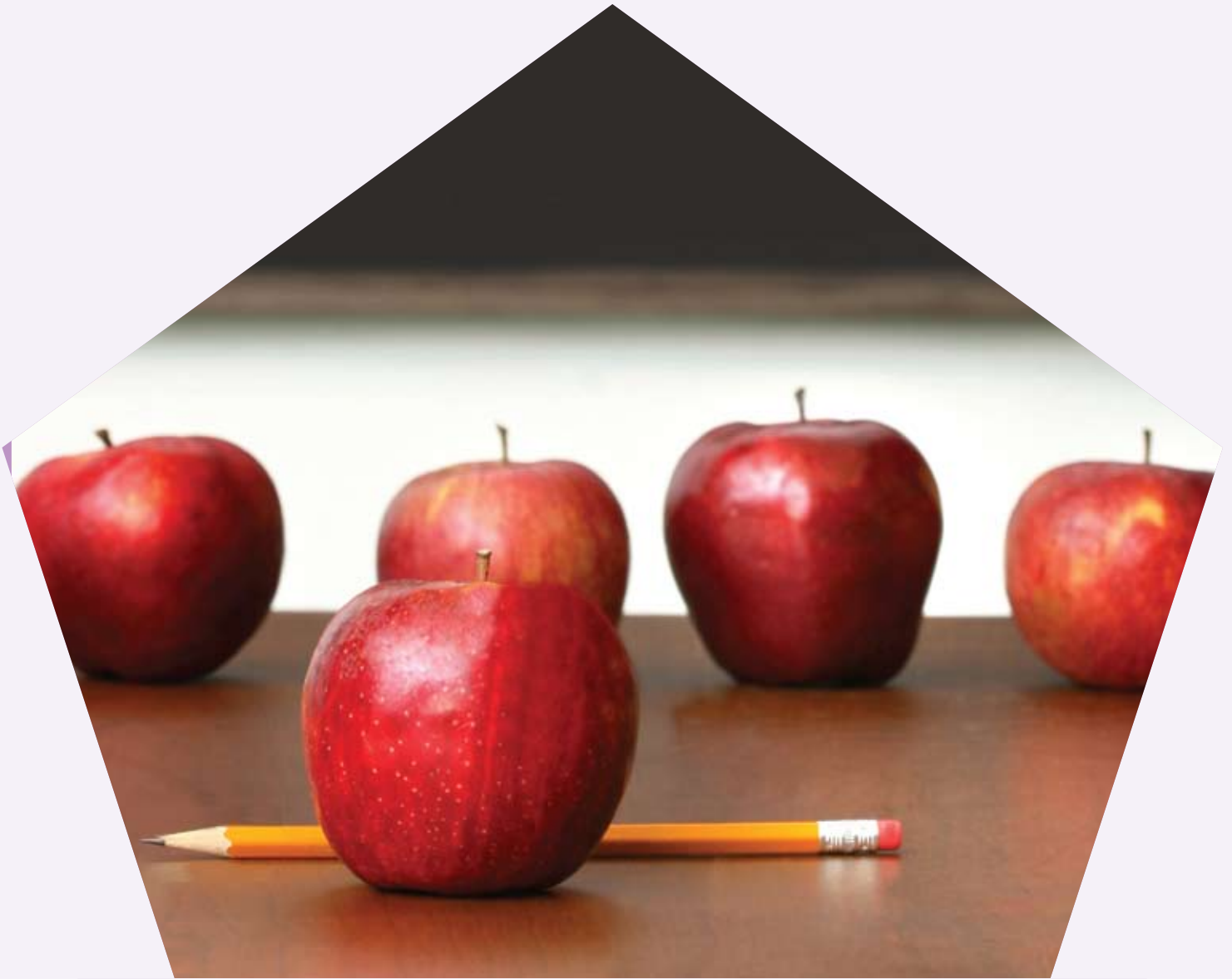
Purpose License)로 대표되는 '기존 소스를 이용하여 새롭게 만든 소스도 공개해야 한다'는 방향과 BSD License로 대표되는 그런 의 무조차 없앤 보다 자유로운 라이선스 유형으로 구분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픈소프트웨어를 통해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폭발적인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많은 시간과 전문인력이 필요했던 소프트웨어를 이제는 단시간에 소수의 인력으로 개발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식기반사회의 성장을 돕는 공유경제** • 최근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오픈소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강자들이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픈소스 진영과 많은 대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오픈소스의 대표적인 제품인 MySQL을 Oracle이 인수하여 이를 유료화해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원천기술과 기반기술보다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에만 집중하다 보니, 선진기업에 대한 기술종속성이 보다 심화되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제는 소수의 IT기업, 불행하게도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IT기업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위에서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가가 우리나라의 IT기술력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국적을 논하며 폐쇄적인 태도를 취할 것은 아니겠지만, 오픈소프트웨어를 단순히 활용하는 수준에서 발전해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이를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도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인터넷 붐이 한창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비즈니스모델(BM) 특허는 근래에 와서는 별 관심과 호응이 부족해 보인다고 보인다. 애초에 BM특허가 과연 특허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 많았으며,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BM특허는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글이 '오픈특허권 비분쟁'을 선언하면서 자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해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사용자, 배포자, 개발자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서도 특허와 라이선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발명특허



박찬선  
(주)넥서스커뮤니티  
부사장



## IP FOCUS 02

# 뉴턴의 사과, 특히로 경제를 말하다



사과는 인류 문명에서 허구와 현실을 넘나들며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성경 속의 선악과인 이브의 사과, 윌리엄 텔과 백설공주의 사과가 있다. 그렇지만 인류 발전에 혁신적 공헌을 한 사과는 아마 뉴턴의 사과가 아닐까? 뉴턴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물 간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 착안하게 된다. 그 후 저서 <프린키피아>를 통해 만유인력과 운동법칙을 포함한 그의 과학이론을 집대성해 발표한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힘, 특허** · 뉴턴은 이런 말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내가 만약 다른 이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섰기 때문이다(If I have seen a little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이는 갈릴레이와 케플러 같은 과학자가 앞서 있었기에 그가 고전역학을 완성할 수 있었음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를 말한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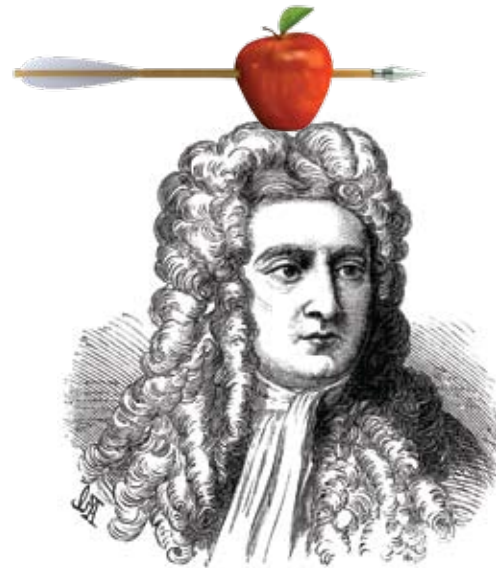
근대 과학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뉴턴도 300여 년 전에 인정했듯이 모든 과학기술의 혁신은 그 이전에 있었던 지식의 토대에서 이루어진다. 특허심사가 바로 그런 것이다. 즉, 누군가가 새로이 창안해낸 기술이 그전까지 인류가 축적해둔 지식에 혁신적 기여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기여가 인류의 기술과 문명을 진일보 시킨 것이라고 판단되면 특허로 등록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 바로 특허제도이다.

**왜 경제공부가 필요한가?** · 뉴턴은 평생 독신이었고 연금술에 심취했던 괴짜로도 유명하다. 영국 조폐국 국장으로 재직할 때, 동전의 훼손을 막기 위해 테두리를 톱니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던 뉴턴이 말년에 주식투자에 실패해 전 재산을 날렸던 것도 잘 알려진 일화다.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천재과학자였던 그도 다른 분야인 경제 문제에는 취약했던 것이다.

신기술을 심사해 특허성을 판단하는 특허청 심사관들도 마찬가지다.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된 전문가들이지만, 정작 본인의 손을 거쳐간 특허가 실물경제에서 맡고 있는 다양한 역할

까지 알고 있기는 힘들다. 즉, 특허란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을 촉진해 경제와 산업발전을 꾀하고자 생긴 제도임을 바쁜 특허심사 업무 중에 잊고 지내는 것이다.

특허청 심사관들은 2013년 하반기부터 ‘특허와 경제 연구회’를 조직해 특허제도가 산업과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떻게 상호 영향을 끼치며 발전하고 있는지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논문을 비롯한 최신기술문서와 특허법, 민사소송법 등의 법률서적만 가까이 하던 특허청 심사관들이 특허라는 동인과 그에 따르는 행위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 Patent Examination



**특허, 수익창출 수단이 되다** •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특허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얼마 전 만난 발명가의 대뜸 “이 특허가 돈이 되겠습니까?”하고 물어 나를 당황하게 했다.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아무래도 특허를 기술관점에서만 보게 된다. 하지만 경제·경영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는 것 같다. 새로운 기술이 돈이 될지 궁금하고, 이 기술을 팔거나 제품화 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다.

실제로 ‘창조경제 시대의 유통화폐’로 불리는 특허를 비롯한 지식 재산을 이용한 지식재산 금융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2013년 KDB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을 신설해 212개 중소기업이 759억 원의 자금을 융자 또는 투자받았고 이제는 시중은행으로도 확대되는 움직임이다. 이렇듯 특허는 제조기업간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수단에서 그 자체로 거래되는 수익창출수단이 됐다.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전문관리회사(Non-Practicing Entities)의 등장은 차라리 필연적이었다. 아카시아 리서치, 마라톤 특허 그룹 등이 활발히 활동 중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중국만 해도 중국 특허청이 홈페이지에 발표한 2013년 지식 재산 금융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래 중국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빌린 금액은 2013년까지 누적 총 638억 유안(RMB)이고 2013년 한 해 동안은 254억 유안(RMB)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다.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는 중관춘 소재 기업들이 투자한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 거래 및 기술사업화 펀드인 휘추양도 지난 달 말에 출범했다. 특허를 경제요소의 하나로 보는데 익숙한 미국의 특허 거래업계에서는 벌써 휘추양이 한국의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와 비교해 어떤 활동을 펼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 법, 경제’ 통달한 특허전문가** • 2008년 금융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는 지식·혁신주도형 산업구조로 꾸준히 변화해가고 있다. 바야흐로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해 특허청은 지식재산서비스와 지식재산비즈니스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기술, 법, 경제라는 세 가지 요소에 모두 통달한 특허전문가의 활동 영역과 역할 또한 덩달아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이것이 특허청 심사관들이 생소한 경제공부를 시작한 이유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했던 바로 그 사과나무의 증손자

나무들이 해마다 국내 곳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이들 ‘증손자 나무’들은 뉴턴의 영국 켄싱턴 집 뜰에 있던 원목의 4세대 후손들로서, 1970년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내에서 접목에 성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허청 심사관들의 특허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안목을 키우려는 ‘접목’ 시도가 늦지 않게 알찬 열매를 맺기를 희망해 본다. **발명특이**



**오정아**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  
기술서기관





### IP FOCUS 03

## 직무발명,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다



세계 최초로 청색 LED를 개발해 니치아화학에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안겨준 나카무라 슈지 연구원에게 니치아화학이 2000억 원을 지급하라는 2004년 일본동경지방법재판소의 1심 판결의 뉴스가 한국의 언론매체에 도배된 적이 있다. 이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비록 본 사안의 항소심에서는 보상금을 감액하여 84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 재판은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도출한 발명(소위, 직무발명이라고 함)에 대한 보상금을 제대로 인정받은 획기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바로 이 사례를 계기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직무발명에 대한 쟁점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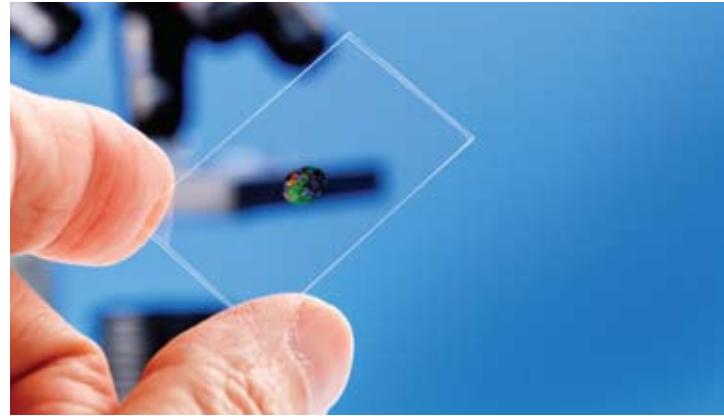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휴대폰의 문자입력방법과 관련된 발명인 소위 천지인 발명을 한 전 삼성 직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난 후, 심심치 않게 직무발명 관련 소송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다. 삼성전자 재직 중 디지털 고화질 TV 등에 관한 국내외 특허 38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발명자가 2012년 1심 판결에서 60억 원의 보상금을 판결 받은 뉴스도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퇴직한 LG 연구원이 LTE 기술 관련 특허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80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도 불과 얼마 전인 2014년 4월에 들려왔다.

이와 같은 소위 발명자의 권익 찾기 분위기에 보조를 맞춰 개정된 발명진흥법이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뒤에서는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내용에 따라 회사와 발명자 양측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직무발명의 의미와 승계절차** • 발명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종업원(회사의 연구원,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회사, 국가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업원이 발명한 것이 만약 직무발명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종업원의 발명과 관련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러한 발명은 직무발명의 반대 개념인 자유발명이므로 종업원의 소유이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특정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를 개량해 발명한 경우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일까 아니면 자유발명일까. 상기 회사의 주 업무는 고속도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호두과자 판매원의 직무는 휴게실에서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관리 업무가 주 업무이며 호두과자 판매원이 기존의 기계를 개량해 자동으로 호두과자를 만드는 기계를 발명한 것은 관리 업무와는 성질상 거리가 먼 것으로서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고 종업원의 직무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발명은 호두과자 판매원의 자유발명이라 할 것이다. 물론 상기 회사가 호두과자 등의 간식을 조리하는 기계를 제작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었다면 상기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분류됐을 것이다.

한편, 종업원이 발명한 것이 자유발명이 아닌 직무발명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발명은 사용자에게 승계될 것이고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직무발명은 회사에 어떤



절차를 거쳐 승계가 되는 것일까. 회사에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의 승계절차를 살펴보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종업원은 직무발명 완성 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여부에 대한 통지를 문서로 해야 한다. 사용자가 기간 내에 승계 의사를 종업원에게 통지한 경우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이고 종업원은 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사용자가 기간 내에 불승계 의사를 종업원에게 통지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하게 될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기간 내 통지를 못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직무발명과 관련해 이번에 개정된 발명진흥법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까.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주요 내용** • 개정된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보인다.

첫째, 대기업의 사전승계규정의 작성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사전 승계규정이란 미리 사용자에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종업원이 특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종업원의 협의를 거쳐 미리 (i)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ii)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를 위해 전용실시권을 설정

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그 발명을 한 종업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대기업으로서는 사전승계규정의 작성을 무조건 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보상규정 작성 및 공개가 의무화됐고 보상규정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가 강화됐다.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보상규정 작성 및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포함해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또한,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종업원과의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종업원과 협의해야 하고, 특히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종업원과 협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사법상 무효가

## Invention Regulations



되며, 그러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  
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기업은 출원보상, 등록  
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방어보상, 출원유보보상 등의 여러 가지  
보상형태뿐만 아니라 보상액, 보상방법이 규정된 구체적인 보상규  
정을 문서로 작성해 종업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회사 내에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근거가 명시  
됐다.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8조에 따르면,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해 사용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직무  
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심  
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  
한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종업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않으면 발명진흥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사용자  
의 의무로 된 것이다. 종업원의 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사용자는  
60일 이내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직무발명 관련 문제 발생, 보상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 이와  
같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사례  
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6년 6월 22일에 선고한  
2004가합22 판결에 따르면, 구 특허법 제40조 제항과 이를 준용  
하는 구 실용신안법 제20조·구 디자인보호법 제24조(판결 당시  
에는 직무발명이 발명진흥법이 아닌 특허법 등에 규정되어 있었음)  
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이 사  
건 발명들로 인해 피고가 얻을 이익,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금 및 원  
고의 기여율을 살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  
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을  $A \times B \times C \times D$ 의 곱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A는 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판매해 얻을 이득액, B는 발명  
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율, C는 발명에 대한 실시료  
율, D는 원고의 기여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여기서 B는 독점매출액  
또는 독점권기여도의 개념이며,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 이익액은 결국 그러한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  
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뜻한다. 결국 이러한 이익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이익 또는 초과  
이익으로 통상실시권을 통해 얻을 이익을 공제한 이익을 의미한다.  
한편, 이와 같이 산정될 수 있는 보상금을 오랫동안 청구할 엄두를  
못 내다가 최근의 발명자 권익 찾기 분위기에 고무돼 소송을 걸어볼  
용기가 생겼다면, 언제까지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년 8월 20일에 선고한 2008나119134 판결

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고 그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특허  
등록 혹은 특허승계시로 볼 수 있지만 근무규칙 등에서 대가의 지불  
시기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정당한 보상  
액의 지불을 받을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아 그 지불  
시기가 정당한 보상액의 지불을 받을 권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 판시했다. 발명특허





—

**정동준**  
특허법인 수 변리사





## IP FOCUS 04

# 특허로 만나는 우리약초



최근 힐빙(healbeing)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치유를 뜻하는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이 결합된 말로서, 건강한 자연 속에서 유기 농산물과 명상 및 예술 융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심신의 건강 회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라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오염된 환경과 바쁜 일상에 지쳐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휴일이면 도심지에서 가까운 산과 호수는 심신의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약초와 버섯을 직접 찾아 건강한 먹거리로 삼기도 하며, 야생화를 관찰하고 사진을 찍는 등 자신에게 맞는 힐빙을 실천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일상의 업무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데는 자연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지난 십수 년간의 경험을 통해 느끼고 있다. 또 오랫동안 숲속을 누비다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것은 우리 곁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고, 저마다 소중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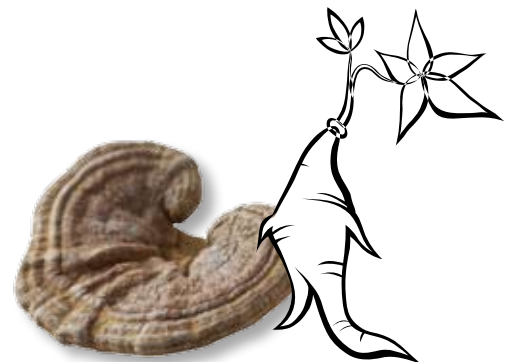


**우리 약초, 특허의 시각으로 접근** • 특허청에 몸담고 있으면서 다양한 특허들과 접하다 보니 들에서 자라는 풀 한 포기, 산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가 허투루 보이지 않는다. 또 관련된 특허를 찾아 보면서 이들 모두가 우리의 귀중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식물 분야의 특허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여 다른 분야의 특허에 비해 더욱 재미있는데, 종전에 알려진 지식은 등록될 수 없다는 특허제도의 특성상 약초에 대한 특허는 가장 최신의 약초지식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

**생물자원 전쟁과 바이오 경제 시대의 대비** • 우리 인류는 다른 생명체들을 이용하여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와 의약품 등을 얻어 왔고, 특히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은 생물자원의 연구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인류의 미래도 많은 부분 이에 의존하고 있다. 그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던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활용한 기술 개발 및 산업적 활용과 관련해 국제적 규범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의 부국(富國)인 개발도상국과 생물자원이 부족한 생명공학 분야의 선진국 간의 갈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 내용은 생물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이해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앞으로는 외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세계철이 뚜렷한 우리나라에는 5천여 종의 식물과 2천여 종의 버섯, 1만 4천여 종의 곤충 등 다양한 생물자원이 있고, 북한 지역까지 포함하면 종의 다양성 측면에서 생물자원의 부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의 제공 측면보다는 이용하는 비중이 더 클 것

이라 전망돼 2010년부터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시행되고 보건복지부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5년간의 프로젝트로 우리나라의 전래되고 있는 민간요법을 발굴·조사하고 있는 등 각급 연구기관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또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결과 및 그를 활용한 산업적 가치는 특허제도에 의해서 보호돼야 할 것이다.

**생물자원 특허 사례** • 일본은 중·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병사들의 설사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치료약으로 개발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자생하는 너도밤나무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것이었다. 일본은 '러시아를 정복한 약'이라는 뜻으로 '정로환(征露丸)'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 약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정로환(正露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정로환을 식초로 녹여서 무좀치료에도 쓰기도 하는데 그 성분이 목초액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 Healbeing



세상을 바꾼 100대 발명품의 하나인 해열진통제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의 살리실산으로 만든 것이며 항암제인 '택솔'은 주목 추출물을 원료로 하고 있다. 멀미약 '키미테'는 미치광이풀의 스코폴라민 성분을 이용한 것이고,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중국에서 '팔각회향'이라는 향신료로 이용해 왔던 스타 아니스라는 식물에 함유된 뉴라미니디아제라는 효소를 이용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식물인 쑥 추출물을 이용한 위염 치료약 '스티렌정', 벌의 독을 이용한 관절염 치료제인 '아피톡신' 등이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되어 의약품으로 출시되었으며, 외상 치료용 가정상비약인 마데카솔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자생하는 병풀을 주원료로 한 것이다. 병풀의 또 다른 이름은 '호랑이풀'로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개발된 외용제인 '호랑이연고'의 주성분도 병풀이라고 한다. 의약품 외에도 단일품목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설화수 윤조에센스'와 같은 한방화장품이나 기능성식품, 친환경 비료, 바이오 연료 등으로 개발되고 있는 사례를 특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생물자원 가치의 재발견**      •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는 한 언론의 연재 기사에서 우리 민족을 '나물민족'이라고 지칭하며 '나물 문화의 유전자'가 있다고 표현했다. "프랑스인이나 중국인이 책상만 빼고 네 다리 달린 것은 모두 다 요리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아마도 한국인은 참기름만 주면 모든 풀을 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다고 자랑할지 모른다"라는 박사의 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각인시킨다.

우리 선조들은 산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고, 민간요법이나 약재로도 이용하는 등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나물과 약초 즉 '생물자원'을 잘 활용해 왔다.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도시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연 위주의 문화는 많이 사라졌지만 한방 전통 의학과 민간요법도 남아있으며, 특히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난치병에는 약초를 포함하는 대체의학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실제로 필자도 십여 년 전에 40대의 형을 암으로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현대의학의 한계에 직면하고 산으로 들로 약초를 찾아다녔고, 숲이 주는 위로에 마음을 치유한 경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특허 정보와 학계의 연구논문들과 결합하여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라는 책을 시리즈물로 출간하게 됐다.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식물자원은 임상 결과가 매우 다양하고 우수한 점이 있지만 과학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일종의 '미신' 썸으로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숲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생명체들은 존재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버섯이나 약초 등의 약용식물을 우리 생활에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간의 특허와 연구 논문을 통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약용식물이 과학적으로도 충분한 약효와 실효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말한 병풍을 예로 들어 보자. 병풍은 민간에서 잘 낫지 않는 피부병이나 상처 등에 주로 사용해온 약초다. 호랑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병풍 밑에서 텅굴며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호랑이풀'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병풍에 대한 최근 연구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특허등록 제984531호, <아임계수를 이용한 병풍로부터의 아시아틱산과 아시아티코사이드의 추출 및 분리 방법>은 아임계수를 이용해 상처 치유 촉진, 세포증식, 콜라겐 합성 등의 효과를 갖는 물질인 아시아틱산과 아시아티코사이드를 병풍에서 입자 상태로 추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특허인 (주)코리아나화장품의 특허공개 10-2003-

0024932호, <병풍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은 병풍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이 세포증식 효과 및 콜라겐과 히아루론산의 합성 효과를 나타내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우수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생물자원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들을 정리한 <특허로 만나는 우리약초> 두 권이 생물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통지식과 현대의 생명공학산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에 아주 작은 역할을 한다면 무리일까. 물론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의 창의적 인재들의 연구와 발명이 중심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발명특허**



—  
**조식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수

# 우리 조직에 맞는 바람직한 건강상태를 점검하다

총무팀

지속적으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가 어디에 있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의견과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보태지고 의지가 쌓이다보면 그 힘은 배가 될 것이며, 의식이 깨어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조직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더 나은 조직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숨겨진 힘 '총무팀'을 만나고 왔다.





**조직과 시스템을 생각하다** • 조직의 힘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목적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 부가가치나 이익 등 그 어떤 형태로든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인사 시스템이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팀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강력하고 소신 있는 리더십으로 총무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두성 팀장은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조직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해쳐서는 안 된다"며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세계적인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2세기에는 각 개인의 창조적인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총무팀은 직원들의 급여, 복무 관리 및 구매·계약, 세무·

회계, 자금수입·지출, 자산관리, KIPS(한국지식재산센터) 건물관리, 임직원 복리후생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쩌면 향후 100년간 지속될지도 모를 경영 화두인 창조경영을 위해서라도 모두들 자신의 업무에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총무팀의 주요성과라 하면 교통유발부담금 절감 등 예산절감을 빼놓을 수 없다. 복리후생 관련해서도 직원들의 만족도를 80.03%에서 88.35%로 향상시켰다.

회계 및 세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은구 계장은 "한국지식재산센터 이자 비용을 절감한 것도 큰 성과였다"고 전했다.

**개인이 아닌 공존을 모색하는 이유** •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 끈끈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합이 중요하다. 총무팀 또한 단합을 위해 자주 모임을 갖고 있는데, 독특하게도 이두성 팀장 자택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 (왼쪽부터) 김정록 사원, 윤용일 계장, 천해숙 사원, 서인철 계장

서인철 계장은 “팀장님 덕에 모두 모여 아자타임, 팀빌딩 게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분위기가 늘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넘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팀의 주요업무가 다른 팀의 지원업무인 만큼 타 팀원을 배려하고 건전한 관계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데, 조직과 개인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며 각자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두성 팀장은 “팀빌딩은 성격, 능력, 일처리 방식이 제각각인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하여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커뮤니케이션법, 피드백법, 리더십 계발법, 갈등 해결법 등을 게임인 듯 놀이인 듯 부담스럽지 않게 실천해볼 수 있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업무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박은영 과장대리는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겠지만, 총무팀 팀원으로서 개별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함량 또한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구매담당자는 계약관련 법령을 숙지해야하며, 회계담당자는 회계원리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팀원들은 개인 능력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를 조직의 역량으로 연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팀’이 가진 무한한 힘** • 총무팀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함께 어울려 일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로부터 업무환경이나 소소한 부분들이 개선되어 도움이 됐다는 감사 인사를 받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



“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세계적인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21세기에는 각 개인의 창조적인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인사 관리 및 복무, 교육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창희 과장은 “인사담당자로서 신규 채용된 직원이 배치된 팀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타 팀원들로부터 업무 능력 및 관계 형성 등에서 칭찬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며 “부모의 마음으로 저절로 아빠미소를 짓게 된다”고 얘기했다.

또한 총무팀에서는 KIPA 사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KIPA 사회봉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비전으로 지난 2007년 4월 발족해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을 방문하는 등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운영하고 있는 나기성 과장대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무팀은 올 한해 전 직원과 동반성장하는 문화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경영 투명성 제고는 물론 전자업무의 신속하고 명확한 지원, 전 직원의 직무역량 및 경쟁력 강화, 장기적 재무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등 한국발명진흥회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계획이다.

의식이 깨어있는 이들로부터 시작될 행복한 조직 변화가 한국발명진흥회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발명특허**



전국유일 'IP 창조 Zone' 거점기관

# 창조경제 성과 창출 시동 건다



Interviewee. 강원지식재산센터 조용형 센터장 & 오태석 부장 & 이원미 브랜드컨설턴트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식재산을 비롯한 기업이 소유한 무형자산이 오늘날 기업가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해 지식재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7년 연속 우수·최우수센터로 선정된 강원지식재산센터를 소개합니다.







**Q 강원지식재산센터(이하 강원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용형 :** 강원센터는 지식재산권 창출 저변확대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지난 2001년 5월 특허청으로부터 지정받아 도내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식재산권(특허, 브랜드, 디자인) 출원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상담, 중소기업의 특허·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태석 :** 저희는 조직 및 업무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 총괄은 조용형 센터장님께서 맡고 계시고, 실무 총괄은 저를 중심으로 행정지원팀 3명, IP사업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행정지원팀에는 원성호 차장, 이병길, 우성화 지식컨설턴트가 행정 및 교육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IP사업팀에는 신재훈 특허컨설턴트, 이진경 디자인컨설턴트, 이원미 브랜드컨설턴트, 정형진 지식컨설턴트가 특허, 브랜드, 디자인, 전통산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Q 강원센터가 지원했던 사례 중 우수성공사례 몇 가지를 말씀해주세요.**

**이원미 :** PVC 창호 제조 전문기업인 (주)시안이 글로벌 창호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주)시안의 창호 통합브랜드 'ARTWIN'은 국내 및 해외상표 등록가능성이 높지 않아 향후 브랜드 활용도에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죠. 이에 저희 센터는 기업과 제품의 브랜드 발전방향이 합치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도출을 모색했고 'withwin'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도출, 블루계열의 컬러 톤으로 혁신적인 제품 이미지를 담아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상표 4건, 해외 상표 2건을 출원하는 등 (주)시안은 브랜드 활용 안정성을 기하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창호 통합브랜드 'withwin'이라는 브랜드 중심의 카달로그 제작을 통해 B2B와 B2C를 아울러 공략하는 브랜드 통합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주)이문메드, (주)두산에코비즈넷 기업에게 PM(Patent map)을 통해 기술동향조사 및 R&D 전략을 제시하고, PM 성과를 R&D기획에 활용하고자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멘토링사업 연계지원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2년간 6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R&D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Q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하고 있는 강원 IP-Festival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오태석 :** IP-Festival은 지식재산 포럼, 강원디자인 공모전, 지식재산 콘서트, 기술이전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 18개 도내 중소기업의 전시체험관, 지식재산 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특허청장,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는 물론 중앙·지방정부 관계기관에서도 매년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IP축제로 범도민, 범국민적인 친지식재산 기반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식재산을 지역 내에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Q 강원도가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강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원미 :** 강원도는 전체기업(제조업 기준) 중 5인 미만의 소기업이 73%를 차지하는 등 기업은 지식재산 전담 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도내에 존재하는 특허사무소는 1곳으로 도내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센터는 앞으로 도내 대학들과 연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들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기업 등 지식재산 협력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과의 지식재산 공감대를 형성해 다양한 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설계를 실현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기고자 발로 뛰며 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Q 현재 강원도 내의 IP 현황과 이 지역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용형 :** 열악한 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5,272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 등록건수는 3,223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기술에 대한 권리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해양생물산업을 지식기반 사업과 연계해 육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 산업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 확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환경 개선으로 인한 교통망 확충 등 여러 가지 여건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지식재산 관련 산업 발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원 IP-Festival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2013년 최우수센터 선정)







강원센터는 전국 지식재산센터 중 유일하게 'IP 창조 Zone' 거점기반으로 선정되면서 도내 우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붐 조성은 물론 협력네트워크 연계 강화와 도내 창업보육 공간 제공, IP창업 자금 연계 경영 애로사항 해소 등이 기대되고 있다.

\* 강원지식재산센터 전화 : 033-749-3310 / 팩스 : 033-749-3344  
 \* 문의 일반사항 : 02-810-8804 / 온라인사업접수 : 02-810-8808  
 IP-Star 기업 : 02-810-8805



**Q** 강원센터는 전국센터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우수, 최우수센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는데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태석 :** 특허청과 강원도, 기초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저희 강원지식재산센터가 7년 연속 우수,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내부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IP-Festival을 개최해 범국민적인 지식재산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점, 독창적인 성장동력 플랫폼과 위기관리체계 구축으로 센터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기업의 융·복합 R&D 과제 선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점, 무작위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결과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점 등의 내부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올 한해는 어떤 면에서 더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이신가요?

**조용형 :** 올 해에는 새로운 사업인 'IP 창조 zone' 운영과 교육 허브구축사업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IP 창조 zone 운영을 통해서 지식재산기반 초기 창업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활용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도록 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허브구축사업 운영을 통해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에 따른 지역 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발명특어**

# 터치 TOUCH 는 살아있다



사람들은 터치(Touch)를 좋아한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보거나 갤러리에 가서 멋진 작품을 발견하면 만져보고 싶어 한다. 미켈란젤로의 그림 '천지 창조'에서도 신과 인간이 손끝과 손끝으로 조우를 하는 터치 장면이 나온다. 고대부터 터치를 통한 촉감의 교환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텔레비전 등을 통해 시각과 청각은 자유롭게 다루어진 반면, 촉감 기술은 최근까지 좀 외면되어 왔다. 이런 터치가 요즘 살아나고 있다.

글\_ 김성진 Master,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공학박사



**촉감 입력 장치의 출현과 발전** • 최근 들어서야 촉감을 입력하는 장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조지 저파이드'가 1994년에 터치패드의 원리를 지식재산화한 이후로 촉감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해졌다. 기존까지는 마우스와 유사한 트랙볼 형태가 노트북 포인트 입력기로 사용되었는데, 저파이드의 터치패드가 상용화된 이후로는 대부분의 노트북은 이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터치라는 사람의 원천 감각을 활용하는 장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터치패드의 기술은 기능이 확장되면서 이제 휴대단말의 입력방식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여러 손가락의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멀티터치 기술의 출현으로 손끝을 통해 더 자유롭게 다양하게 신호를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뉴욕대학교 연구원이던 한인 '제프 한'은 자신이 개발한 멀티터치스크린 기술을 2006년 유명한 강연회인 TED에 소개해 화제가 됐다. 그는 '퍼셉티브 픽셀'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자신의 기술을 상용화했다. 심지어 타임지에 의해 2008년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에도 포함되었을 정도로 터치뿐만 아니라 촉감 기술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제 터치 기술은 훨씬 고도화되고 있다. 휴대단말의 입력을 스타일러스 펜으로 실제 펜처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정전 기술의 고도화로 손가락 지문을 순식간에 인식하는 기술로도 발전하고 있다. 휴대단말 스타일러스 펜의 경우, 터치 화면의 전자기장 유도와 펜 끝의 코일에 의한 전자기장 변형을 통해 펜 끝의 움직임에 대해 미세하면서도 누른 강도마저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문인식 터치 기술은 손끝에 흐르는 정전기가 지문의 모양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지만 주변 잡음에 민감하다는 특성에 따라 오류를 감소하고 신호를 증폭하는 원형금속을 덧붙여 정전 방식으로 동작이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터치 기술의 개발과 확산된 사례를 보면 개발자가 지식재산의 출현을 통해 자신의 권리도 보호받았을 뿐 아니라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도 촉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촉감 재현 장치로의 도전** • 촉감의 만족을 고려한 예로, 제품의 외장은 플라스틱이지만 마치 부드러운 천연재료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있다. 플라스틱이기에 견고하고 가볍지만, 사람들의 감각에 맞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같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기술은 촉감 재현 기술의 초기로 정교한 촉감을 다른 고기능성 재료로 흉내내는 단계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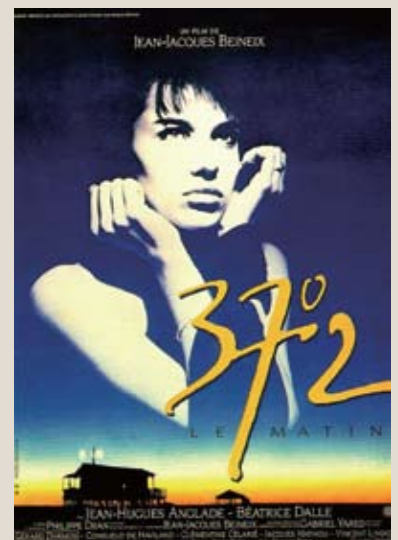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는 원숭이에게 젓을 주는 모형 어머니를 통해 촉감의 중요성을 실험해 보았다. 젓이 잘 나오지만 철망으로 만든 모형과 젓이 잘 나오지 않지만 부드러운 스펀지 고무로 만든 모형을 만들어 두었다. 새끼 원숭이들은 젓이 잘 나오지

않지만 하나같이 부드러운 재료로 만든 어미 모형으로 모여들었다. 촉감 만족은 어린 원숭이조차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욕구임을 보여주는 실험이었다.

최근에는 기본적인 촉감을 재생해내는 장치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 특허 스타트업기업으로 인증된 힘스코리아는 일반 문자를 촉감을 통해 감지하는 점자로 바꾸어주는 휴대장치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한때 성악가인 안드레아 보첼리가 사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마무리** •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가 있다. 프랑스에서 기획하고 일본인 오시마 나기사가 만든 영화다. '베티블루 37.2' 같은 영화라는 평에서부터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영화라는 등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나는 제목에 대해 말하고 싶다. 감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대중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IBM에서는 진정한 인지형 컴퓨터의 개발을 위해 인간의 오감에 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촉감을 포함해 오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통할 때 진정한 인지형 컴퓨팅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언제쯤 오감을 충분히 흉내 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점점 다양한 감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발명특어**





# 진정성, 전통성 담은 우리 고유브랜드 '선삼仙蔘'의 비밀



## (주)진생사이언스

세계인이 효능을 인정하는 불로장생의 영약 '인삼'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특화작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이나 캐나다에서 인삼을 대량 재배함에 따라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인삼연구팀이 6년여 연구개발 끝에 '선삼(仙蔘)'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선삼으로부터 진세노사이드 Rk1, Rg3, Rg4 등 7종의 신물질을 추출했으며, 홍삼에 극히 일부 함유돼 있는 Rg3, Rg5 등을 대량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신물질은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해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k1, Rg3, Rg5 등은 백삼이나 수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항암·항치매 효과 산삼보다 수십 배 높아** · 진생사이언스 김복득 대표가 인삼 연구에 몰두한데는 우리나라 '인삼'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기 위함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삼의 효능은 홍삼과 산삼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993년 당시 서울대 약대 학장이었던 박만기 교수의 인삼연구팀을 후원하며 본격적으로 신물질 개발에 착수했다.

1993년부터 시작된 개발은 6여 년간의 연구 끝에 특수가공을 통해 항암·항산화 효과가 홍삼보다 300배, 산삼보다 80배 뛰어난 활성 신물질인 '선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개발된 선삼에는 항암, 항산화, 치매 치료에 기존 산삼보다 약 수십 배 월등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과산화물을 제거하고 피로와 노화를 방지할 수 있음도 밝혀졌다.

서울대 약대를 주축으로 전국 현직교수 18명이 연구진으로 활동 중인

진생사이언스를 한국발명진흥회 오승택 사업지원본부장과 함께 방문했다. 선삼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나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었다.

김복득 대표는 선삼의 대표적인 효능으로 '항암효과'와 '항치매효과'를 꼽았다. 그 효과는 실험결과를 통해 면밀히 드러났다. 항암제와 선삼을 암세포가 퍼진 동물에게 투여하고 그 결과를 16주 동안 지켜봤다.

**01. 02** 선삼개발의 결과 2002년 '특허기술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우수신기술 KT마크를 획득,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서울 국제발명전, 2003년 스위스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전시회, 미국 피치버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전시회 금상 등을 수상했다. **03** 진생사이언스 김복득 대표(좌)와 한국발명진흥회 오승택 사업지원본부장(우)이 제품으로 출시된 선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03





04



05

항암제만 투여한 동물의 암세포가 16% 작아진 반면, 항암제와 선삼을 동시에 투여한 동물은 암세포가 46% 작아진 것이다.

“저희와 같은 바이오산업은 그 효과가 여실히 드러나야 합니다. 부작용 또한 없어야 하고요. 연구진과 교수들의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효능’이라 한다면, 이것 먹어보고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능과 효과가 모두 나타나야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선삼은 그 두 가지가 모두 입증된 결과물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수님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덕택이죠. 또 1년에 두 번씩 득이든 실이든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점이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와 수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다** • 진생사이언스의 역사는 14년에 불과하지만 수상이력은 헤아릴 수 없다. 제41회 무역의 날 수출 첫해 100만불 수출탑 수상, 2004년 신지식인 선정, 2006년 선삼개발사례로 대통령표창 수상, 2009년 벤처기업대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으며, 2012년 5월 18일 발명의날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선삼 개발로 세계로부터 인정받아 특허 또한 다량 보유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특히 대표제품인 ‘선삼정’은 12개국에서 국제특허를 획득함과 동시에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캐나다를 포함한 1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선삼 개발 후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산업훈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을 받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특히 저희와 같은 기능제품들은 ‘상’이 우수함을 대변해주죠. 그렇기에 수상할 때마다 그 의미가 매우 값집니다. 또 상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전시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저희 스스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죠. 전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비롯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의 인솔과 함께 부스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내외 전시를 참여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삼’으로 한국의 위상도 높이고 국민 건강에도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오승택 본부장은 “한국발명진흥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발명전시회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며 우수한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홍보의 발판을 마련하고, 우수한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김 대표는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건강기능식품에서





**04. 05** 현재도 진생사이언스에서는 선삼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대 약대교수들의 주축으로 전국 유능한 대학교수 18명이 합류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06** 김 대표는 과학기술 지원사업과 후학양성을 통해 2세기 국가과학기술문화진흥에 일익을 담당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07** 진생사이언스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사업으로 국내 외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천연 의약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의사 처방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승인을 받아내 판로를 더욱 넓혀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 선삼의 우수성, 해외에 알린다** • 진생사이언스는 업계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인 동시에 '인삼'이라는 한 우물만 파온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진생사이언스가 최근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선삼을 연구개발 후 꾸준하게 여러 나라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이 컸다. 얼마 전에는 미국 콜롬비아대학 병리의학실에서 선삼이 항치매에 탁월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치매를 유발시키는 뇌신경독성물질인 에이 베타 아밀로이드42를 줄이는 특이 물질은 선삼의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5, Rk1이었습니다. 특히 Rk1이 가장 탁월한 성분으로 드러났지요. 또 2006년 미국 컬럼비아대 병리의학실 김태환 교수팀의 임상 실험결과에서도 선삼의 진세노사이드 Rg5, Rk1 성분이 치매를 유발하는 뇌신경독성물질인 에이 베타 아밀로이드42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베트남 종합병원에서 실행된 임상결과 6개월 동안 항암제만 투여한 암 환자의 생존율이 20%인 반면 항암제와 선삼을 같이 투여한 암 환자는 약 80%의 생존율이 나타났다. 그 결과 병원에서는 선삼과 함께 항암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인삼을 재배하며 그 경쟁이 거세진 만큼 진생사이언스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자연환경을 이용해 세계 시장을 거머쥘 제품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내외로 견제가 날로 심해지고 경쟁 또한 심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작지만 큰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 7월을 목표로 우리 제품이 새롭게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삼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진취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산화 효과, 항암 및 암 예방 효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선삼'. 진생사이언스의 지속적인 연구로 우리의 고유 '인삼'이 다양한 기능성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진두할 미래를 기대해 본다. **발명특허**

# 그남자, '유리'로 손톱을 탐닉하다

알파옵트론 대표 정철진

손톱을 깎고 모양을 다듬은 후 손톱의 표면에 윤기를 내는 '손톱 관리'는 여성이라면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최근에는 예쁘게 손톱을 꾸미는 네일아트가 대중화되면서 직접 집에서 손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손톱을 다듬는 '네일 파일'과 윤기를 내는 '네일버퍼'를 결합한 네일케어 제품을 발명해 세계 여성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발명가가 있다. 바로 네일사이너 개발자 알파옵트론의 정철진 대표다.



**오랜 노하우가 만들어낸 결실** · 대학에서 광학공학을 전공한 정철진 대표는 졸업 후 유리 관련 연구소에서 15년을 근무했다. 그는 유리로 된 휴대폰 액정과 필터 부품을 주로 제작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손톱관리기구 제작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돼 본격적인 제품개발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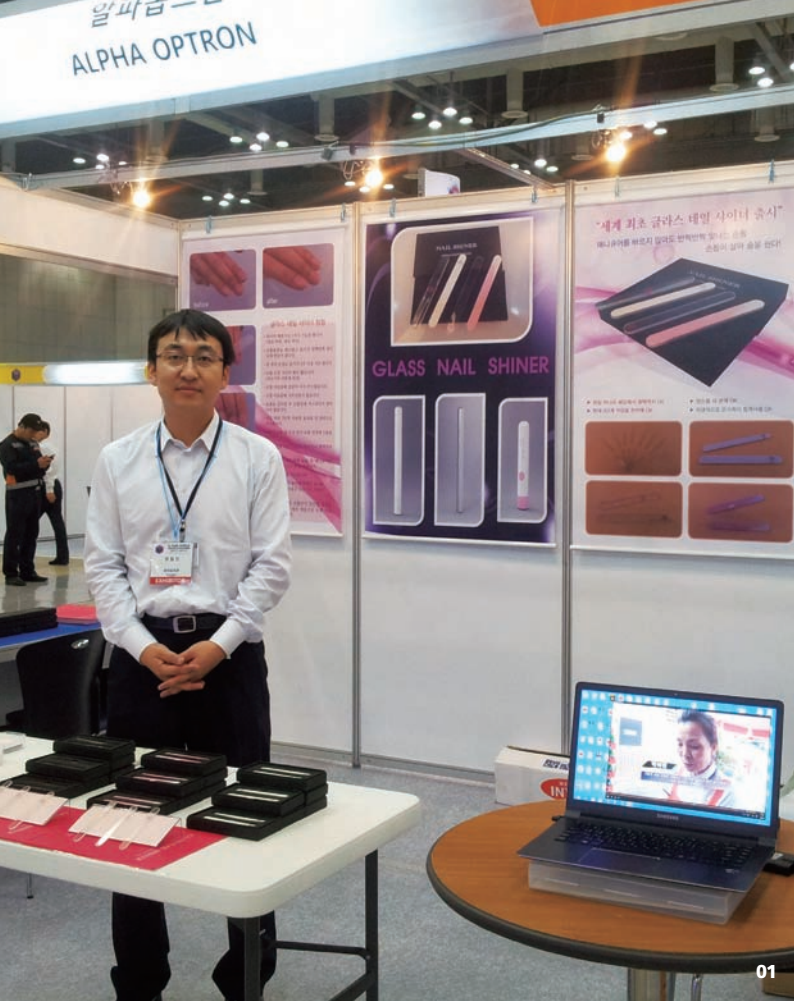
그의 발명은 우연한 '기회'로 시작됐지만 첫째 딸에게 제품 테스트를 해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 제품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꾸준히 노력하니 양산까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게 됐다.

“여성분들이 손톱관리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는지 몰랐어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 손톱에 스스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 저절로 관리가 되더군요.”

얼핏 보면 평범하게 생긴 유리 막대기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발명품 안에는 수많은 공정과 그의 오래된 노하우가 함축된 기술이 들어있다. 특히 기존의 네일파일·버퍼와는 확연하게 다른 '유리' 소재가 눈에 띈다.

“기존 제품의 경우, 스펀지와 같은 공업용 수지를 사용했다면 네일

01 '2013 대한민국우수상품전람회'에 참석한 정철진 대표 02 정철진 대표는 '2014 제네바 국제발명품전람회'에 참석해 금상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발명협회 특별상까지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03 유리 소재가 돋보이는 '네일사이너'



01



02



03

사이너는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학공학을 전공하고 유리와 관련된 연구를 수년간 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익숙하고 친숙한 소재이면서 친환경적인 유리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함, 그 이상의 기술** • 단순한 유리막대기처럼 보이는 네일사이너이지만 제작에 필요한 기술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특히 손톱에 마찰을 가하는 부분에는 반도체 공정을 활용한 정밀 패턴 에칭 기술을 사용했다. 불량률을 줄이고 안정적인 패턴을 구현하기 위한 잉크와 약품 처리 기술도 필요하다. 여기에 열 강화와 화학 강화 기술을 합친 특수 강화 기술을 적용해 제품의 내구성을 높였다. 광학공학을 전공하고 15년간 유리를 연구해온 정 대표의 노하우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발명품 전시회인 '2014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네일사이너로 금상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발명협회 특별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발명

진흥회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발명전시회는 기간이 매우 짧는데 반해 제네바에서 열린 전시회는 5일 정도로 길었습니다. 전시기간동안 전시회 부스를 구성하고 진행하는데 한국발명진흥회의 많은 격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상의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성공의 힘, 기술에 '격려'를 더하다** • 그의 '발명의 힘'은 한 분야에서의 오래된 경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격려에서 비롯됐다. “전시회 등에 참여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에게 제품 테스트를 해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힘을 얻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셀프 네일 케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 요구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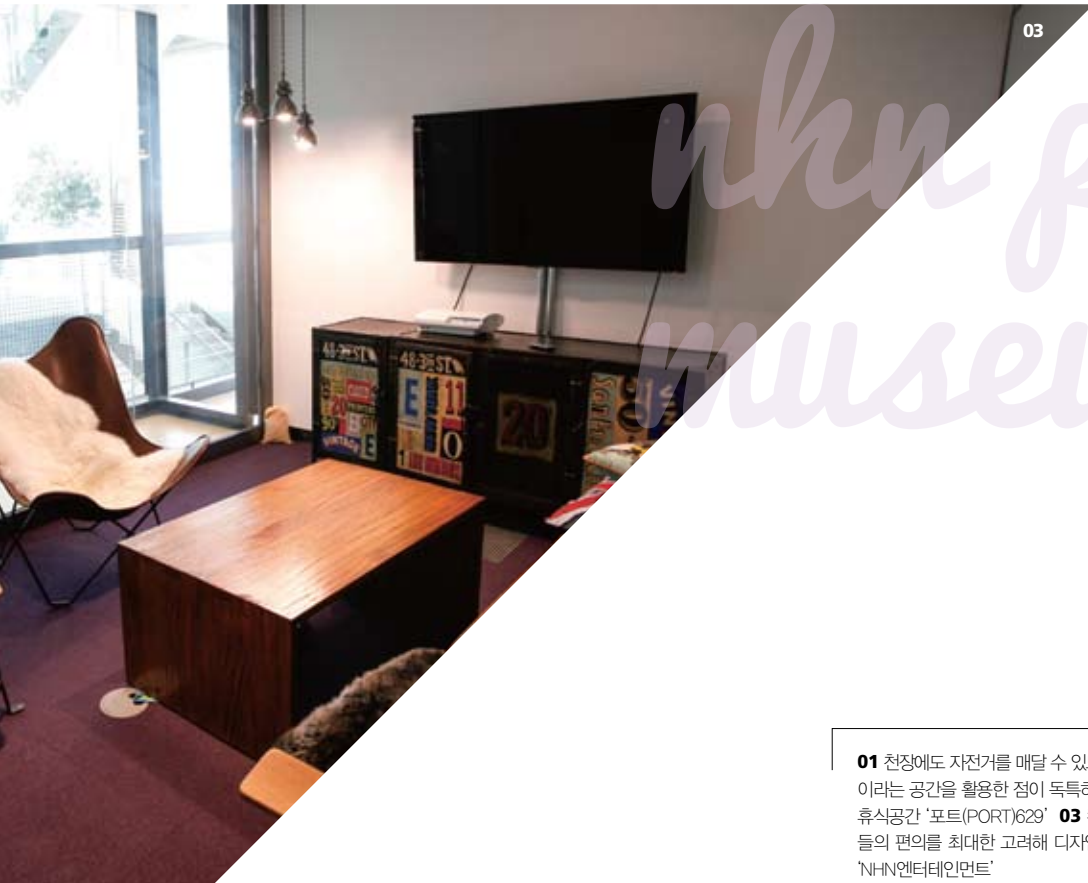
그의 목표는 '네일사이너'가 손톱깎이처럼 생필품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발돋움할 그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발명특이**





01

02



03

# nkn play museum

**01** 천장에도 자전거를 매달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주차장 'BIKE HANGER'. 천장이라는 공간을 활용한 점이 독특하다. **02** 항구를 콘셉트로 디자인된 직원들의 휴식공간 '포트(PORT)629' **03**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 만든 회의실은 직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디자인했다. **04** '놀'줄 '즐길'줄 아는 이들의 공간 'NHN엔터테인먼트'



## 즐거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 NHN엔터테인먼트

가장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놀' 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게임은 단순한 놀이(Play)의 가치를 넘어 예술(Art)과 과학(Science), 그리고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라 말한다. 이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는 공간으로 매일 출근을 한다. 바로 '놀이가 작품이 되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게임회사 NHN엔터테인먼트의 사옥 플레이뮤지엄(Play Museum)이다.





### 특색 있는 공간창조, 솟아나는 영감들 • NHN엔터테인먼트

는 2013년 8월 네이버의 게임사업부문이 분할돼 설립된 회사이다. 그들의 새로운 출발은 경기도 판교에 신사옥을 지어 올리며 시작됐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녹색 통유리의 플레이뮤지엄은 재미와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돼 있다. 게임을 만드는 '박물관(Museum)'이라는 의미만큼 틀에 박힌 사무공간의 통념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총 11층으로 구성된 건물은 로비, 지하식당, 워크룸, 컬처스페이스, 옥상정원으로 나뉜다. 우선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천장이 없는 넓은 공간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측면으로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된다. 천장과 바닥에 여러 대의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는 이색적인 모습이다. 이곳은 자전거로 출근 도장을 찍는 직원들을 위한 자전거 주차장 'BIKE HANGER'. 바닥뿐만 아니라 천장에도 자전거를 매달 수 있게 공간을 활용했다. 또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있어 편리하게 점검받을 수도 있다. 사용자의 편의를 얼마나 고려했는지 새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1층 로비 '그라운드 존'에는 익숙한 모형으로 자리한 소파가 이곳을 방문한 손님을 반기고 있다. 블록 형상의 컬러풀한 '테트리스 소파'는 NHN엔터테인먼트의 공간을 캐주얼하게 꾸미면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일반적인 건물의 계단이 '비상계단' 역할을 하며 건물 한 칸에 숨어

있는데 반해 플레이뮤지엄의 계단은 건물 중앙에 위치한다. 기능과 디자인을 넘어 색다른 소통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회의실이라고 다 같은 회의실이 아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 만든 회의실은 블랙, 화이트, 클래식, 캠프 스타일 등 총마다 다른 콘셉트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를 하는 공간이자 휴식의 공간인 이곳은 마치 개인의 '방'을 연상시킨다. 이곳에서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소규모 미팅을 진행하며 서로 소통한다. 또한 자사의 게임뿐만 아니라 타사의 게임을 즐기면서 새로운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를 통째로 건물 안으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공간도 있다. 사옥이 위치한 삼평동 629번지에서 이름을 딴 '포트(PORT)629'이다. 마치 작은 항구도시 같기도 하고, 배 갑판 위에 올라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테이블과 의자의 색상 또한 화이트와 블루 계열로 맞춰 시원한 느낌을 준다. 항구 콘셉트로 디자인된 이곳은 '새로운 도전, 항해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직원들은 항해를 떠나는 선원으로 규정했다.

즉 네이버에서 분할한 후 다시 바다로 출항한다는 의미와 새롭게 게임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는 직원들을 위한 식당, 카페테리아뿐만 아니라 농구대, 다트, 탁구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휴식공간을 자처하고 있다.



# nhn play museum



08

**마음을 움직이는 섬세한 배려** • 회사생활에 있어 '복지'란 직원들에게 최대의 관심사이다. 특색 있는 콘셉트가 좋은 영감을 준다면,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한 공간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플레이뮤지엄의 2층은 '유틸리티 존'으로 직원들에게 복지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특히 각종 세균에 대한 살균작용이 탁월한 히노카리움목(편백나무)을 사용했다. 이곳에는 양호실을 비롯해 샤워실, 수유실이 위치한 힐링존과 출장을 위한 여행사와 보험처리를 도와주는 보험사, 업무상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헬프데스크까지 다양한 유틸리티가 밀집해 있어 직원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3층부터 9층은 사무 공간이 들어서 있다. 책상은 듀얼 모니터를 놓을 수 있을 만큼 넓은 상판을 적용했고, 파티션은 낮게 설치해 직원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했다.

페스티벌을 콘셉트로 기획된 10층은 대강의장, 교육장,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피트니스센터는 판교 삼평동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 멋진 풍경뿐만 아니라 힐링 효과까지 독특히 준다. 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스널 트레이너도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휴(休)에서 창조되는 종합예술** • 10층에서 이어지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유일하게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공간 '옥상정원'이 나온다. 탁 트인 공간 곳곳에 위치한 테이블과 의자가 눈에 띈다. 의자들은 심플하면서도 컬러풀해 NHN엔터테인먼트의 크리에이티브함과 즐거운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한결 따뜻한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로를 걷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에서는 게임회사만의 자유로움이 느껴진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일과 휴식의 경계를 허문 공간이 즐겁고 창의적인 종합예술을 만들고 있었다.

사육은 더 이상 사무용 공간이 아니다. NHN플레이뮤지엄 역시 사육 그 이상의 개념을 뛰어 넘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놀이의 즐거움과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재미있는 게임을 만든다'는 철학이 건물에 투영된 일터이자, 생활의 공간이며, 박물관이다. NHN엔터테인먼트가 만들어갈 또 다른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발명특허**

**05** 갑판 위에 올라선 듯한 느낌을 주는 식당과 카페테리아 **06** 계단의 기능과 디자인을 넘어선 '코어계단'은 건물 중앙에 위치하며 색다른 소통의 기능을 하고 있다. **07** PORT629 내에 있는 마린코트는 게임대회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08** 내부에 들어 서면 마치 테트리스를 연상시키는 의자가 곳곳에 눈에 띈다.

# GLOBAL REPORT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각 나라별 지식재산기구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합니다

자료제공\_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미국 무역대표부, 「2014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www.ustr.gov](http://www.ustr.gov)



지난 4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4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에는 82개 국가를 분석하여 이 중 10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27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2013년도와 동일하게 우크라이나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고, 그 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도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환경에 대한 우려 증가를 강조함
- 중국의 영업비밀의 보호 및 집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 및 기타 시장

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함

- 이탈리아와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관련성고를 인정하여 두 나라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시킴
- 유료 TV 프로그램의 원제작자, 작곡가, 기타 독립적인 예술가를 포함한 미국 저작권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카리브해 지역의 음악 라이선싱 및 케이블 방송 문제를 강조함
- 인도, 쿠웨이트, 파라과이, 스페인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참여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기 검토(Out-of-Cycle Reviews, OCR)」를 실시할 계획임

한국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지식재산권 감시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

## 미국 Wall Street Journal, 삼성-애플 2차 소송의 배심원 평결 결과에 대한 견해 표명

online.wsj.com



지난 5월 4일, 미국 Wall Street Journal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 결과, 애플이 경쟁기업인 삼성을 위협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삼성-애플 2차 소송은 주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것이며, 2014년 5월 2일 배심원 평결이 있었으나, 애플이 총 손해액과 관련해 배심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검토가 진행됐으며, 5월 5일 최종 평결에서 손해배상액은 동일하게 확정됐다.

삼성-애플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은 애플에 1억 1,962만 5,000달러(약 1,232억 원), 애플은 삼성에 15만 8,400달러(약 1억 6,3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해 쌍방일부승소 평결을 내렸다.

삼성이 애플의 데이터 태핑(quick links), 슬라이드 잠금 해제, 단어 자동 완성 등에 관한 특허를 일부 또는 전부 침해했으나, 통합검색 및 데이터 동기화에 관한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삼성의 카메라 및 사진 관련 특허를 침해했으나, 디지털 이미지·음성기록 전송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Wall Street Journal은 동 평결이 삼성을 재정적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동 사건에서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5건은 모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기본 기능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국 승소자는 구글이라고 평가했다.

산타클라라 대학 Brian Love 교수는 삼성이 애플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애플이 청구한 금액의 10%도 안 되고, 이는 애플이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고 설명하며, 동 평결이 애플의 대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노트르담 로스쿨 Mark McKenna 교수는 동 사건에서 애플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으며, 러트거즈 로스쿨 Michael A. Carrier 교수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애플의 잡초와 같은 특허권 행사이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삼성과 애플이 서로 라이선스를 체결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 미국 특허상표청, 「인도주의를 위한 특허 프로그램」을 정규 사업으로 추진

www.uspto.gov



지난 4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이하 USPTO)은 「인도주의를 위한 특허 프로그램」을 정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USPTO는 미국 백악관이 지난 2월 20일 발표한 「특허 시스템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권고 및 행정명령 중 「글로벌 발전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USPTO는 의약, 영양, 위생, 가정용 에너지, 생활수준의 5개 부문에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특허 받은 기술을 제공한 기업가와 발명가를 선발해 수상할 계획이다.

특히 프런티어 마켓(frontier markets)\*\*에서 필요로 하는 에이즈 치료제를 공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영양가 높은 식품을 개발하고, 고립된 마을에 태양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한 10명의 수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 접수는 오는 4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수상자에게는 USPTO의 출원 절차에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 USPTO는 글로벌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기업, 발명가, 비영리 단체, 대학들에게 USPTO에서의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도주의를 위한 특허 프로그램」을 2012년 2월 8일부터 1년간 시범 착수하였고, 2013년 4월 11일 수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음.

\*\* 프런티어 마켓(frontier markets)이란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지역의 국가들을 의미함.

\*\*\* 10명의 수상자 외에도 수상 순위에 들지는 못했지만 호평을 받은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수상자의 수는 제출된 프로그램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GLOBAL REPORT

### 중국 국무원, 시장질서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단속강화 방안 발표

[www.iprchn.com](http://www.iprchn.com)



지난 4월 14일, 중국 국무원은 「2014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의 제조·판매 단속 업무 요점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에 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원은 시장경제 체계를 공고히 하고, 법에 따르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 요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6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32가지 세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 전문 단속 행동 조직 구성

인터넷 상 위조 상품 판매 행위 적발,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전문 단속 행동 조직을 구성함

#### • 주요 문제에 대한 집중 단속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 상품 유통에 관한 집중 단속 및 상표, 특허, 저작권 등 침해 물품에 대한 세관 보호를 강화함

#### • 범죄 처벌 기능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검찰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권리 침해자의 재범죄를 예방함

#### •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행정·법집행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위법행위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함

#### • 대외 교류 증강

선진국과의 지식재산권 의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함

#### • 침해 신고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의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신고에 대한 장려제도를 활성화함

### 일본 외무성,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발표

[www.nikkei.com](http://www.nikkei.com)



지난 4월 18일, 일본 외무성(MOFA)은 한·중·일 3개국에서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동 협정은 2012년 5월의 한·중·일 정상 회담에서 서명했고, 일본에서는 2013년 11월 국회에서 승인됐다.

이는 한·중·일 세 국가 간 체결된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으로 기존 양 국가 간 체결한 투자보장협정보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투자 국가별 분쟁 처리 규정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보장협정의 발효로 인해 한·중·일 3개국이 진행하고 있는 자유 무역협정(FTA) 협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 마루큐 코야마엔 등, 상표 등록 거절 요구서 대만 정부에 제출

[www.new24.jp](http://www.new24.jp)



지난 4월 15일, 일본 마루큐 코야마엔 등 우지차 판매점 3개 회사는 대만에서 회사명과 로고가 상표로 신청된 것에 대해 대만 정부에 상표 등록 거절 요구서를 제출했다.

마루큐 코야마엔은 교토에서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지차 판매점으로 녹차 롤케이크 등 녹차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대만에서 회사명과 로고가 상표로 신청된 것이 알려져 판매점의 신뢰가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했다.

등록 상표 분야의 전문가인 아츠미 모토유키 변리사는 대만에서 이런 상표 무단 등록 현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대만 사람이 일본 교토의 가게를 알고 대만에서 상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이 가지겠다는 생각을 했거나, 일본 회사가 진출해 오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루큐 외에도 말차 디저트로 유명한 차료초치리나 나카무라 후지요시 본점의 회사명이나 로고도 마찬가지로 대만 사람이 상표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의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2014-2015 목표」 설정

www.gov.uk



지난 4월 11일, 영국 지식재산청(이하 UKIPO)은 지식재산의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2014-2015 목표」를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익제기를 돕기 위해 상표 출원서 제출 90일 이내에 출원서 80%를 공개 게시
- 2014년 여름까지 지식재산 집행에 대한 논의를 위한 국제 포럼을 마련하고 국제 청중 유치
- 2014년 말까지 고아 저작물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수립
- 2015년 3월 말까지 온라인 기반의 「IP for Business」를 통해 10,000개 기업에 지식재산 홍보
- 2015년 3월 말까지 관리자의 95%가 관리개발 활동(management development activity)을 완료
- UKIPO의 자본이익률(Return on Capital Employed, ROCE) 4% 달성
- 고객만족도 80%까지 향상

지식재산 Lord Younger 장관은 영국에서의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이득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UKIPO가 수립한 목표들은 영국 경제의 성공적인 성장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모토로라에 대한 경쟁법 위반 결정

europa.eu



지난 4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경쟁법에 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2011년, 모토로라는 스마트폰의 표준필수특허 침해해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모토로라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원의 금지 명령을 통해 경쟁사의 필수적인 기술 특허 사용을 방해한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착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모토로라와 같이 SEP를 보유한 측이 법을 이용해 경쟁사가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 라이선싱 계약에 있어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고 협상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모토로라는 자사의 특허 중 일부를 SEP로 선언했으며, 프랜드(FRAND) 선언\*에서 SEP를 라이선스하겠다고 하는 이행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판례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각국 법원이 다양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모토로라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본 판결은 삼성의 이행약속 수용 결정과 함께 SEP 집행을 위한 판매금지 명령 청구가 반경쟁적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Joaquin Almunia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으로 경쟁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제품에 대한 장점으로 경쟁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해 행위는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는 표준이 된 특허기술의 권리자가 경쟁자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하기를 내줘야 한다는 것임.

# IP NEWS

## 특허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길을 넓히다 국방 R&D 지재산 창출·활용역량 제고 계획 수립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IP-Market(지식재산거래시스템)에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의 특허기술이 공개되어 민간기업이 ADD의 첨단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특허청과 ADD는 2006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2014년 4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여 창조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3년간 ADD의 특허출원은 총 1,31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보유한 특허도 2013년 말 기준으로 2,017건에 이르렀다. ADD가 보유한 특허 중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는 기술 이전대상기술 또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말 기준으로 664건에 이르렀다.

그간 ADD는 민군협력진흥원의 사이버기술이전거래소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시행해왔으나, 민간기업의 접근이 어려워 대부분 방위산업체와 기술이전계약이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허기술거래가 활성화된 IP-Market에 ADD의 기술이전대상기술이 공개되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기업이 첨단 국방기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ADD가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ADD가 연구과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과제와 연관된 특허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 경쟁력 있는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특허청과 ADD의 교육기관을 서로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심사관이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에서 전문기술을 교육받고, ADD의 연구원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재산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연구원들의 지재산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향상돼 연구개발결과가 강한 특허로 창출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과 농식품부, 종자강국 실현 위해 손 맞잡는다! 종자 등 농식품분야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종자 등 농식품분야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부가가치 종자개발을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와 농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50대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단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업무협력을 강화하고자 두 손을 맞잡기로 한 것이다. 양 부처는 이러한 협력이 종자 등 농업관련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문제해결형' 사업이 되도록 폭넓은 실무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 협력안을 마련했다.

- **종자분야 IP 권리화 및 분쟁해결 지원**
  -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제도 조화 및 심사협력
  - 종자분야 지재산 컨설팅·분쟁 지원 위한 '종자 지식재산권 공동 대응 네트워크' 운영
  - 특허정보·품종보호정보 공유 등을 위한 농식품부·국립종자원과 특허청 간 정책협력 강화
- **농식품분야 IP-R&D 연계 사업 지원**
  - R&D 현장에 특허전략전문가를 파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재권을 확보도록 맞춤형 특허획득(IP-R&D) 전략 수립 지원
  - IP-R&D 연계 위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간 협력 강화 등
- **농식품분야 IP 사업화 지원**
  - IP 가치평가, IP 금융, IP 거래·사업화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한국발명진흥회 간 협력 강화 등

농식품부 장관은 "종자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 강화와 R&D 사업화 촉진을 위한 양 부처간 협력이 종자 주권 확보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허청장은 "전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종자 등 농식품 산업 발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 특허심사관, 중소기업 현장 속으로

### 특허청, 특허전략지원단 출범

특허청은 지난 4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4년 특허전략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특허전략지원단에 참여하는 심사관을 비롯해 산·학·연 지식재산 관련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허전략지원단은 지난해 시범실시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과 기술전문성을 모두 보유한 110여명의 심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재권 중심 특허획득 전략지원, 발명인터뷰 사업 등 중소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대학·공공연 등 특허 창출과 보호 활용이 필요한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특허전략지원단 활동을 통해 기업은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핵심특허 확보, 활용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참여 심사관도 산업 현장의 정책 수요 및 기술관련 최신 동향도 습득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특허전략지원단으로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CPU) 사업에 참여한 경연정 컴퓨터시스템심사관 심사관은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멘토링하면서 특허심사와 기술 전문성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지원단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특허전략지원단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산업 현장 속에서 기업의 애로를 직접 체험하며 정책 아이디어도 발굴하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전략지원단 운영을 지속하면서 지원 대상과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와 지방이 만나 디자인산업 경쟁력 높인다!

특허청과 서울디자인재단, 부산디자인센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5월 1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디자인진흥사업 전반에 대해 지식재산권 연계(디자인출원, 등록, 관리 등)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화두가 되면서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전체 침해 사례 중 디자인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40.9%에 이를 정도로 디자인 도용이나 침해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디자인창작의 주체인 디자인계의 디자인권리 보호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특허청과 지역디자인진흥기관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디자인 보호와 진흥을 연계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5월 20일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5. 27), 서울(6. 18), 광주(7. 3)로 이어지는 지역순회 디자인보호포럼을 공동개최한다. 또한 특허청은 지역디자인진흥기관의 디자인권리 보호 관련 사업 및 교육, 상담 등에 디자인심사관 등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디자인권리 보호제도 개선·발전을 위해 지역디자인진흥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협약에 필요한 디자인권 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지역디자인진흥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청의 디자인 보호정책과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 진흥사업들이 상호 융합되어 상승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강한 바이오 특허 만들어 드릴게요!

### 중소 바이오기업 대상 'Bio-IP 카운슬링' 개시

특허청은 바이오 분야 전문심사관으로 구성된 'Bio-IP 카운슬러'가 바이오기업을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바이오 분야 지재산권 컨설팅을 시범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59%를 차지하는 중업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이들 기업이 경영여건상 독자적인 지재산권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워 지재산권 정보 활용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조사했으며 상반기 중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되며 기업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io-IP 카운슬러'는 바이오기업을 방문해 업체별 지식재산권 수준을 진단하고 백신, 세포치료제, 항체 의약품 등과 같은 각 기업별 전문 사업분야에 맞추어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전략, 각 기업이 원하는 세부 전문기술별 특허통계정보, 특허심사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과 바이오 의약품 특허 DB 항체의약품, 백신 및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에 대한 특허, 독점권, 임상·인허가 정보 및 국내외 시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www.kobics.or.kr) 등의 바이오 분야 지식재산권 정보활용 교육도 병행한다. 특허청은 바이오분야의 전문적 컨설팅을 위해 국내·외 유수의 대학에서 관련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심사관을 중심으로 'Bio-IP 카운슬러'를 구성해 '족집게'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io-IP 카운슬러'에 관한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042-481-8115)로 하면 된다.



## 특허 빅데이터에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

### '특허 청사진' 통해 유망기술, R&D 전략 제시

특허청은 올해 5개 산업분야(농림수산식품, 부품, LED/광, 신재생에너지, 해상/항공수송)에 대해 대규모 특허분석을 통해 원천·핵심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사업'(이하 청사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가 전 세계 연구자들의 고급 지식을 축적한 '기술의 보고(寶庫)'라는 점에 착안하여, 특허라는 빅데이터를 통해 기술발전 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찾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원천·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떡잎 단계'의 신기술을 찾아 연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특허 확보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은 전 세계의 대규모 특허정보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청사진 사업을 기획해 2012년부터 추진 중으로,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를 18대 산업분야로 나누고, 매년 3~5개 산업분야씩, 2015년까지 18대 산업분야 전체에 대한 특허전략 청사진을 구축할 예정이다.

청사진 사업은 산업별로 특허관점의 객관적 기술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특허분석을 통해 미래 유망 후보 기술을 발굴한 후, 원천·핵심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10대 유망 기술을 선정하고 R&D 전략을 수립해 기업체와 정부 부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년에는 농림수산식품, 신재생에너지, 해상 및 항공수송, LED/광, 부품 등 5대 산업분야를 추진할 예정으로 지난 3월 25일, 2014년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부·산업부·농식품부 등의 국가 R&D 기획전문가, 특허청 심사관 및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산·학·연 기술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해 세부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며 금년도 청사진 구축을 본격 시작했다.

특히 금년에는 각 산업분야의 미래 사회 전망과 미래 전략제품에 기반하여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정부 부처 등 수요자 맞춤형 특허전략 기술로드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분쟁국가대상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체계 구축

특허청은 이달 말 주요 분쟁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현지에서 신속한 대응 대응을 지원하는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체계가 구축된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가 설치된 4개국(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을 포함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소송이 빈번한 국가 등을 중심으로 대륙별 최소 1개 국가 이상으로 구축했다. 아울러 국내외 연계 등을 통해 17개국 현지에서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IP 분야 전문 로펌 47개사를 모집해 전문가 풀을 구성했다.

이번 지원체계는 중국 등 4개국에 설치된 IP-DESK의 해외 진출기업 지원 사업을 IP-DESK 미설치 지역의 주요 분쟁국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IP-DESK 미설치 지역 13개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IP 담당자가 지정된 해외 공관 및 KOTRA 무역관이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 현지 지재권 분쟁의 초동대응을 위한 법률자문과 모조품 유통방지를 위한 침해조사를 지원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 안내는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61)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02-2183-5891~3)로 문의하면 된다.

\*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UAE, 남아공, 브라질



### 5G 입체영상으로 올림픽승리 감동을 1,000배로 즐긴다

2018년,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입체영상으로 중계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승리의 감동을 고속철도를 타고 움직이면서도 실감나고 짜릿하게 즐길 수 있다.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이 앞으로 펼쳐 보일 세상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5G 후보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300여건에 이르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G는 4세대(4G)보다 1,000배 빠르게 사람·사물·정보를 초고속으로 연결시켜 실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산업 및 타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기업들이 앞 다투어 5G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2020년부터 상용화될 5G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기술개발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허청에 제출된 4G 관련 특허가 1만천 건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5G가 상용화될 2020년경에는 5G 관련 특허가 1만 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에서 초고주파수를 사용하여 1G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낼 수 있는 5G 기술을 시연했고, SK텔레콤도 2018년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우리정부도 5G를 선도하기 위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고, 2020년 세계최초 상용서비스 실현과 함께 특허 경쟁력 1위, 일자리 1만 6천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7년간(2014~2020년) 정부·민간 공동으로 약 1.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KIPA NEWS

## 광주시회, 제6·7대 회장 이·취임식 및 IP스타기업 인증식 개최

광주시회는 지난 4월 14일, 제6·7대 회장 이·취임식(6대: 나영산업(주) 고정주 회장 / 7대: 디케이산업(주) 김보곤 회장) 및 2014년 IP스타기업 인증식을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국립광주과학관 관장,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원장,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호남지원장,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우리은행 호남지역본부장,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장 등 지역 유관기관장과 지역 지식재산경영인을 비롯해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회원, 발명인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보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시민 및 기업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해 기업경영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지역 학생 및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상용화 제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생활 속 아이디어를 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며,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에 있고 그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이념 아래, 지역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창출 지원과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종업원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의 기업분위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IP스타기업에 대한 스타기업 확인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로 진행된 'IP스타기업'에는 (주)오이솔루션을 포함해 15개사가 선정됐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는 1993년 9월에 설립돼 광주지역의 지식재산인력양성, 발명진흥사업,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활동지원 등 발명지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김보곤 광주시회장

- 현 디케이산업(주) 대표이사
- 동신대학교 명예박사
- 전 (주)동양정공 (관리 및 영업부장)
- 전 (주)대우중공업 (설계사원)

수상 : 대한민국명품브랜드대상 수상 (지식경제부, '13)  
 산학연협력 우수기업 장관표창 (교육과학기술부, '12)  
 5,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대통령산업포장) (지식경제부, '10) 외 다수



## 제1회 지식재산 교육활용 경진대회 개최

우리회는 지난 5월 7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함께 '제1회 지식재산 교육활용 경진대회'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총 16개 기업·연구소 등이 참가했으며, 금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교육을 통해 최적화된 특허 교육관리 기법도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주)탑엔지니어링(대표 김원남, 류도현)이 수상했다.

탑엔지니어링은 지식재산 전문가 위탁교육 및 특허분석전문과정 등을 통해 특허권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 특허팀을 신설해 특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은상(특허청장상)에는 한미약품, 현대캐피코가 선정됐으며, 동상은 대성전기공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필룩스가 차지했다.

그간 우리회와 특허청은 기업, 연구소, 대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과정과 대국민 이러닝으로 지식재산 및 발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본 대회는 이러한 지식재산 교육을 이수한 기업·연구소 등의 생생한 교육 실무적용 사례를 발굴해 이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발굴된 교육활용 우수사례를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타 교육 훈련기관에도 전파해 지식재산 인력 양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우리회,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발명학습용 게임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우리회는 지난 3월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발명학습용 기능성 게임 개발·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기능성 게임'은 게임적 요소인 재미에 특별한 목적(교육, 훈련, 치료 등)을 부기한 것으로, 게임 산업의 영역 확대와 건전한 게임 문화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받는 문화 콘텐츠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발명 학습용 기능성게임의 공동개발과 보급 ▲개발 완료된 게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 확대와 홍보 ▲기타 협약기관 간 공동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대해 상호협력한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능성 게임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발명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더욱 쉽고 흥미로운 방식의 발명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2014 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 금상 18개 포함 총 40개 수상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총 5일간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개최된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는 41개국에서 참가한 기업과 발명가들이 624점의 발명품을 내놓으며 자웅을 겨뤘다.

대만이 96점의 발명품을 대거 출품했고 중국이 63점, 태국 61점, 러시아 52점, 이란이 45점을 출품한 가운데 한국은 26사(명)이 27점의 발명품을 선보여 금상 18개와 은상 9개, 특별상 13개를 수상하며 한국 발명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주요 수상자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저주파 치료기 및 다이어트 시스템을 개발한 문찬곤 씨가 금상을 수상했고 연결케이블 기능을 포함한 휴대용 전자기기 케이스로 김경민 씨가 금상을 받았다. 절삭과 광택이 동시에 이뤄지는 손발톱 연마 미용기구를 개발한 정철진 씨는 금상과 함께 사우디발명협회 특별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이번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는 '발명 3관왕'도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방설 제거장치로 금상을 받았고 전력선 통신 기반의 원격 검침용 계측장치로 금상과 함께 러시아발명협회 특별상까지 수상했다. 덴클 소속의 박보영 씨는 칫솔을 출품해 금상과 함께 러시아발명협회 특별상과 대만발명협회 특별상까지 받아 전 세계 발명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대회 참가를 주관해온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발명전시회에서 금상 18개를 포함해 40건 이상을 수상한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번 수상은 한국 기업과 발명인들의 창의성과 발명기술의 탁월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2014 모스크바 국제발명전시회 한국 참가자 전원 '3관왕' 달성

우리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모스크바 예코센터 소콜니키에서 열린 '2014 모스크바 국제 발명품 및 신기술 전시회(이하 2014 모스크바 국제발명전)'에서 한국 참가자 전원이 '3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째인 2014 모스크바 국제발명전에는 중국과 태국 등 18개국이 약 1000여 점을 출품했으며 한국은 2개 기업이 2점의 발명품을 선보여 금상 2건과 특별상 4건을 수상했다.

아이존은 안구운동을 통해 시력저하 예방과 시력향상을 돕는 '시력회복 운동기용 제어장치'로 금상과 함께 루마니아발명협회 특별상과 대만발명가협회 특별상을 받았다.

또 다른 참가업체인 ㈜푸시풀시스템은 기존 도어록이 잡고 돌린 후 밀거나 당겨야 문을 열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밀거나 당기기만 해도 열리는 '푸시풀 도어록장치'를 발명해 금상과 불기기술대학교 특별상, 몰도바교과부 특별상을 받았다.

푸시풀 도어록은 돌리지 않고 밀거나 당기면 열리는 도어록으로 화재 등의 비상사나 몸이 불편한 장애우, 힘 없는 노약자, 손이 작은 어린이가 손쉽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2014 말레이시아 국제발명전시회 금상 3점 등 총 8점 수상

우리회는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4 말레이시아 국제 발명품전시회'에서 우리나라가 금상 3점과 특별상 5점으로 총 8점의 수상작을 냈다고 밝혔다.

(주)푸시풀시스템(대표 송인회)은 밀거나 당기기만 해도 열리는 푸시풀 도어록 장치를 출품해 금상과 대만발명진흥협회 특별상, 폴란드발명협회 특별상, 러시아 국제과학기술협회 특별상을 수상하며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에인에이(주)대표 김현철)는 비선형 자극이 가능한 벨트형 복부 경락 자극 장치로 금상과 대만발명진흥협회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개인으로 참가한 최영숙, 이태경 씨는 발모촉진제 조성물 제조방법을 출품해 금상과 함께 대만발명진흥협회 특별상에 선정됐다.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1) 활용전략 컨퍼런스 개최

우리회는 특허청과 함께 지난 4월 16일 대학·공공(연) 및 기업의 지식재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제고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공유할 목적으로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1) 활용전략 컨퍼런스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1)’은 신속·간편하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허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09년 우리회에서 개발해 2010년 첫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2013년까지 모두 118개 기관(법인, 업체 등 포함)에서 약 13만 건의 특허분석평가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은 작년 공개특허 분석서비스와 출원인 명칭 표준화 및 데이터 정제작업을 거쳐 사용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특허분석평가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대학 산학협력단,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져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박은규 책임은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해 대학 소유의 특허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매각을 위한 잠재 수요 기업의 발굴에도 유용해 상당한 기술이전 성과도 거두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김성원 팀장은 “작년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의 평가정보를 활용하여 약 260개 회사에 508억 원의 지식재산 우대보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 『지식재산금융과 가치평가실무』 책자 발간 조경선·임재용 지음

최근 창조금융·지식재산금융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인 지식재산 가치평가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식재산금융에 활로를 제시하고자 『지식재산금융과 가치평가실무』 도서가 발간됐다.

한국금융연수원이 발간하고, 우리회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조경선 소장과 (주)아이피트리 임재용 대표이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최근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실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창조금융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기업금융은 재무실적 위주의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우수한 기술력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금융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고, 창조금융에 적합한 금융권의 새로운 평가시스템 요구에 발맞춰 기획됐으며, [지식재산권(IP) 금융] 과정 교재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본서는 기술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이론적 또는 개념적 체계정립부터 구체적인 가치분석·평가방법 및 실제 평가사례를 소개하고 지식재산금융의 과거·현황·목표시장·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인뿐만 아니라 기술평가기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관심이 있는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전문가 그룹을 비롯해 지식재산금융 관련 정책수립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49회 발명의 날 포상자 명단

훈격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금탑산업훈장	엘에스산전(주)	대표이사	구지균	
은탑산업훈장	합자회사 동서콘크리트	대표사원	이강협	
은탑산업훈장	삼성전자(주)	Master	공준진	
동탑산업훈장	한국전력공사	이사	김병숙	
홍조근정훈장	한양대학교	교수	윤선희	
철탑산업훈장	(주)세종이앤씨	대표이사	민경남	
철탑산업훈장	캐노픽스 본사 코리아하픽스	대표	안기풍	
석탑산업훈장	(주)웍스	대표이사	이형철	
옥조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	한귀정	
산업포장	(주)코리아하이텍	대표이사	여승훈	
산업포장	(주)클렘본	대표이사	최성훈	
산업포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형준	
산업포장	한국발명진흥회	부장	이두성	
근정포장	영동대학교	부교수	황재효	
대통령표창	유베(주)	대표이사	강용훈	
대통령표창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영진	
대통령표창	특허법인 씨엔에스	대표자	손 원	
대통령표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김창훈	
대통령표창	(주)세종파마텍		(주)세종파마텍	단체
대통령표창	현대자동차(주)	책임연구원	심휴태	
국무총리표창	에이에이(주)	대표이사	김현철	
국무총리표창	(주)브레인빌더	대표이사	김인숙	
국무총리표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병복	
국무총리표창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수석	이종천	
국무총리표창	여도중학교	교사	임왕빈	
국무총리표창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단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엔에프씨	대표이사	유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캐노픽스	대표이사	박경식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프엔에스	대표이사	남승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라오넥스(주)	대표이사	신근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씨테크알앤디	대표이사	이동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성전자(주)	수석	명세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허 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동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	김용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	문혜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영동대학교	3학년	차 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육군	상사	김정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우주영재과학	대표	안외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충남중학교	교사	임병웅	

훈격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천호중학교	교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단체
특허청장표창	하이스트 시스템(주)	대표이사	권필목	
특허청장표창	(주)리노셈	전무	민승기	
특허청장표창	(주)인스턴	대표이사	국연호	
특허청장표창	(주)코워드원	대표이사	윤상조	
특허청장표창	보스키피부과학(주)	대표이사	장태순	
특허청장표창	한국전력공사	선임연구원	박준영	
특허청장표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유성	
특허청장표창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대훈	
특허청장표창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재학	
특허청장표창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	이경숙	
특허청장표창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윤형주	
특허청장표창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 범	
특허청장표창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2학년	권서원	
특허청장표창	영동대학교	4학년	이종훈	
특허청장표창	고려대학교	2학년	한원흠	
특허청장표창	서울특별시	주무관	윤진구	
특허청장표창	육군 본부	중령	박송기	
특허청장표창	송의중학교	수석교사	박성우	
특허청장표창	용화초등학교	교사	류원호	
특허청장표창	울산대학교	교수	류광선	
특허청장표창	육군 본부		육군본부	단체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지엔이텍(주)	대표이사	김재구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신에딧(Synedit)	대표	김승찬	단체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에스엘테크(주)	대표이사	이 성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이진용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조이풀사이언스	대표	강민수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주)현성오토텍	부장	서정수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류홍제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재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서울광신고등학교	3학년	양혜지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양재고등학교	3학년	채주희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효양고등학교	2학년	이상윤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1학년	김재홍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한양대학교	3학년	김준규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행정별정	이지희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포항영신고등학교	교사	신동훈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타코마테크놀로지(주)		타코마테크놀로지(주)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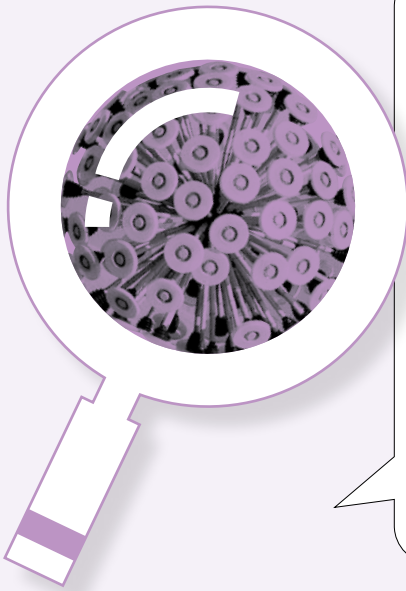




# 발명특허의 모든 것 “보고, 듣고, 생각하다”

## 3+4월호 리뷰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는 독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평소 발명과 특허에 관심 있는 10명의 '2014 모니터링단'을 선발했습니다. 이로써 매호마다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지면에 게재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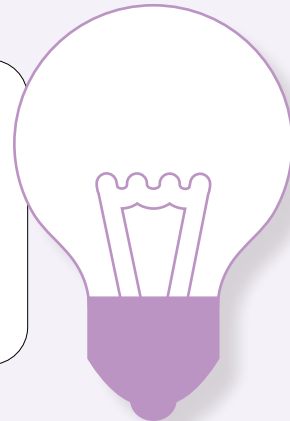
### ● 이동훈 (대학생, 28세)

**<Imagination>** - 마인카폰과 <Creation> - 이상목 교수님의 사례를 통해 결국 발명이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에 그 본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 최근 창조경제·청년창업 등과 같은 뜨거운 이슈들은 자칫 '새로운 것'을 발명으로 인지시키기 쉬운데 더 나아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한다는 간단하면서도 당연한 진리를 잘 전달한 것 같다.

**<IP Focus>** - '변리사의 공동대리권'에 대한 것은 업계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다. 평소 해외 입법례가 어떠한지 궁금했었는데 도표로 알기 쉽게 분류해주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다만 기사 자체가 변리사의 공동대리권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측의 근거로 해외 입법례를 들고 있는 것은 약간 편향된 듯하다. 물론 논고이다 보니 당연한 것이기도하겠지만 기왕이면 변리사의 공동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의 자세한 논지나 이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논고 또한 함께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 ● 김종찬 (대학생, 23세)

**<생활 속 발명이야기>** - '젊음과 패기로 도전하는 21세기 에디슨' 금오공과대학교의 거북선신화 동아리 기사가 매우 유익했다. 지금까지 혼자 구상하고 고안해내는 활동을 발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생각보다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자유토론' 사례를 보고, 앞으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도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 노재연 (기업인, 53세)

〈IP Focus〉 – ‘스티브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무효가 된 애플 특허’ 기사에 많은 공감을 했다. 스티브잡스는 아이폰을 시연하면서 당시 특허를 받는다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와 관련된 중요한 기술은 발표 전이나 공개 전에 우선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해 독점적인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기사를 보면서 특허 출원의 선출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허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기사가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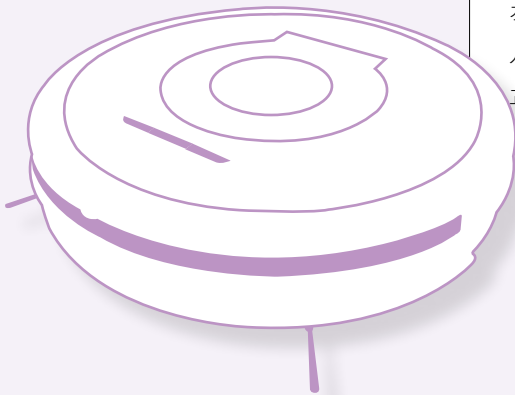
● 이수동 (공무원, 61세)

〈IP Focus〉 –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발명에 대한 기술을 비밀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누설하고, 일단 시제품을 만들어 공개한 후에 반응이 좋으면 특허를 받을까를 생각한다. 또한 특허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기 어렵고, 설명 안다 해도 시행하기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이다. 향후 〈스티브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무효가 된 애플 특허〉와 같은 특허분쟁 해결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선 발명제도를 실시하기를 주장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익한 사례가 많이 게재돼 특허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피해사례가 줄었으면 좋겠다.

● 김서정 (주부, 33세)

〈지식더하기, 기술나누기〉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그에 대한 성과가 잘 나타난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품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 후 점차 성장해 나가고 있는 마미로봇에 대한 기사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열린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는 기사였다. 앞으로 여성 발명인에 대한 기사도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발명 분야에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인력(발명교사, 발명 기업인 또는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움을 시도한 여성 발명인)에 대한 기사를 통해 독자들의 적극적 참여 의식 고취 및 동기부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mamirobot



# KIPA QUIZ

## Readers Comments



### ● 2014년 5+6월호 퀴즈

- Q. 둘 이상의 집단이 제각각 소유한 하나 이상의 특허에 청구된 것의 개발을 위해 서로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합의를 가리키는 용어로, 어떤 기업이 자기 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일을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 Q.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특허정보를 활용해 5대 기술별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 평가 서비스와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 ● 2014년 3+4월호 퀴즈 정답

01. 특허일괄심사제도  
02. 바운스 백(bounce-back)

### ● 2014년 3+4월호 퀴즈 당첨자

유홍수 youb\*\*\*\*@naver.com (강원도 원주시)  
장희지 schi\*\*\*\*@empas.com (대구광역시 북구)  
방일권 ban\*\*\*\*@wrcon.naveroffice.com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조항원 독자 (경기도 의정부시)

매호 <발명특허>를 보면 맨 처음 커버스토리의 프롤로그를 먼저 유심히 봅니다. 몇 줄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기에 몇 번이나 곱씹어 읽고 메인 기사를 마주합니다. 이번호 역시 날카롭고 올바른 문제의식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발명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우연에 대하여 끊임없는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이야말로 창조의 에너지이며, 발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할 수 있었습니다.

### ● 이현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년이 만든 장난감, 소중한 목숨을 구하다'라는 특집 칼럼은 기대 이상의 감동을 넘어 제 삶에 소중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발명을 시작했지만, 결국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발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발명에 접근하는 두 가지 자세를 함께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상생활 속 문제의식의 바람직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 마소도의 '마인카폰' 이야기는 아마도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를 읽고 퀴즈의 정답과 독자의견을 [smp@kipa.org](mailto:smp@kipa.org)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일 7월 16일)



# 원고 모집 안내

한국발명진흥회가 발간하는 「발명특허」는 발명진흥사업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및 정보를 다루는 전문정보지로 본회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고 투고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원고 모집 안내

「발명특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 의견과 정책·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간되는 지식재산 전문정보지입니다.

콘텐츠 중 [IP Focus]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정보를 선도하고 정책·기술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투고를 받고자 합니다. 단, 길고 딱딱한 글이 아닌 신문의 칼럼 형식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모집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칼럼
- 원고 주제: 관련 분야별로 자유롭게 선택
- 원고 분량: 원고지 22매~24매(A4용지 10Point, 3매 이내)
- 모집 시기: 상시 모집
- 보내실 곳(E-mail) : smp@kipa.org

## ● 한국발명진흥회 지회·지부 안내

지회·지부	지회장·지부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정기상	김유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07(가야동) 새마을회관 6층	051-645-9683
광주지회	김보곤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경제고용진흥원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403호	033-264-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2층 9호	063-471-1284

# 명판제작 지원사업 안내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통해 수상·인증·선정·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자금심 고취 및 기업 홍보 계기를 마련하고자 명판 제작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 ● 해당사업

사업명	세부사업
발명진흥사업	· 발명의 날 포상 수상기업 · 국제발명전시회(제네바, 독일 등) 수상기업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수상기업 · 대한민국발명특대전 수상기업 · 우수상표공모전 수상기업 ·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우선구매 추천기업 등
사업화지원사업	· 특허기술평가지원 기업 ·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 기업 등
창의인재육성사업	· 발명교육센터 등
평가지원사업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보유기업 등

## ● 명판사양 (450mm×300mm)

\* 명판 내용은 각 사업에 맞게 수정 예정

A 실내용	B 실외용
① 형 : wood 신주 부식 도장 330,000원(VAT포함)	① 형 : 주물 골드코팅 광택 341,000원(VAT포함)
② 형 : mirror 스텐 부식 286,000원(VAT포함)	② 형 : 신주D절곡 부식 도장 308,000원(VAT포함)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명판 사양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명판제작비용 입금(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팀(02-3459-2796 / nameboard@kipa.org)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목적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촉진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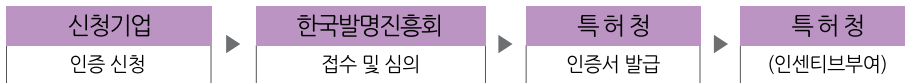
## 인증제 개요

-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신청 자격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인증 절차



## 인증심의 기준

- 평가 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운용의 합리성(40점)
- 인증 기준 :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 자격부여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특허청)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 개선기술개발사업 등  
(미래창조과학부) SW공학기술현장적용사업 등 3개 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인증 중소기업·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 감면(2년간) (2014.03.01.일부터 적용)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4년 3월 3일부터 연중 수시접수 (발급수수료 : 무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신청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팀 (02-3459-2845, 2793 / 2845@kipa.org)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 2014년 교육일정표

(단위: 원)

지식재산 일반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환급/지원	수강료(회원사)
1	02.12~02.14	지식재산권 기초 1기	노동부 환급 15~20% 환급	각 과정당 55만(48만)
2	02.19~02.21	미국특허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전략 1기		
3	02.26~02.28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 1기		
4	03.05~03.07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1기(전기·전자·기계)		
5	03.05~03.07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1기(화학·생명·바이오)		
6	03.19~03.21	특허 검색기초 및 특허성 판단 1기		
7	03.26~03.28	주요국(IP5) 특허출원 및 OA 절차 1기		
8	04.02~04.04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전기·전자·기계)		
9	04.02~04.04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화학·생명·바이오)		
10	04.09~04.11	미국특허분쟁 및 소송 대응전략		
11	04.23~04.25	특허기술가치평가 실무		
12	05.14~05.16	지식재산권 기초 2기		
13	06.18~06.20	강한 상표를 위한 출원 및 사업화전략(브랜드마케팅까지)		
14	06.25~06.27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맵 구축전략		
15	07.16~07.18	강한 디자인 창출 및 출원전략(도면까지)		
16	08.27~08.29	지식재산권 기초 3기		
17	09.03~09.05	미국특허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전략 2기		
18	09.17~09.19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2기(전기·전자·기계)		
19	09.17~09.19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2기(화학·생명·바이오)		
20	09.24~09.26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 2기		
21	10.06~10.08	특허 검색기초 및 특허성 판단 2기		
22	10.15~10.17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전기·전자·기계)		
23	10.15~10.17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화학·생명·바이오)		
24	10.22~10.24	주요국(IP5) 특허출원 및 OA 절차 2기		
25	11.05~11.07	지식재산권 기초 4기		

IP강사 양성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회원사)
1	05.19~05.20	지식재산 전문교수요원 양성교육(T2L) 1기	각 과정당 30만
2	05.26~05.27	지식재산 전문교수요원 양성교육(T2L) 2기	
3	하반기 중	지식재산 전문교수요원 양성교육(T2L) 3기	



한국지식재산센터



제1교육장



제2교육장



교육생 휴게실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2014년 교육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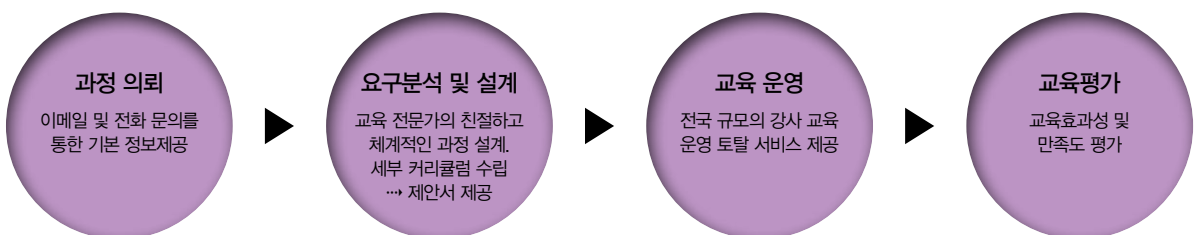
(단위: 원)

지식재산 특별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회원사)
1	03.14	해외 특허출원 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1기	각 과정당 18만(15만)
2	04.18	중국의 IP이슈	
3	05.02	특허분쟁 발생시 단계별 대응전략	
4	06.05	영문 지식재산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기	
5	06.13	PCT 출원마스터	
6	07.04	직무발명 신고 및 보상절차, 보상액 산정	
7	07.11	특허소송 시 변론능력 SKILL UP	
8	08.08	모바일 관련 지식재산권 전략	
9	08.18	IP R&D(제품수명 주기에 따른 특허전략)	
10	08.22	해외 특허출원 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2기	
11	09.12	영문 지식재산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2기	
12	10.02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13	10.28	각국별 상표출원 및 마드리드 출원전략	
14	11.27~11.28	특허법원 최신판례 동향(판사초청)	

지식재산 전문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
1	06.24~07.24	특허엔지니어 양성교육과정 (특허 명세서 실무인력 양성) 5주간 일주일에 2회(화, 목) 7~10pm	80만
2	9월 중		
3	11월 중		

지식재산 국제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
1	9월 중	지식재산 실크로드_이스라엘(해외연수)	추후 공지

## 맞춤형 단체위탁교육



- 상기 교육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www.ipcampus.net>)
- 회원사: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의 경우 할인가 혜택 제공

# 나에게 꼭 맞는 취업 정보 쉽게 찾을 수는 없을까요?

최신 채용정보와 지식을 공유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재들을 위한 취업포털 사이트에  
지금 바로 접속해 보세요!



**ipin** ([www.ipin.or.kr](http://www.ipin.or.kr))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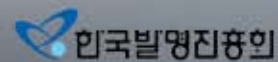
인재가 희망하는  
지식재산기업 채용정보와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 인재정보로  
가득합니다.



## ipin 제공서비스

- ▶ 지식재산분야 채용 및 인재정보
- ▶ 지식재산분야 최신뉴스 및 교육/행사정보
- ▶ 각종 지식재산 정보와 취업 노하우 공유
- ▶ 언제 어디서나 보다 쉽게 만나는 모바일

**IPIN(m.ipin.or.kr)**





## APEC-KIPO 적정기술 컨퍼런스

APEC 회원국 간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전략**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4. 7. 2(수) ~ 3(목)

| 장소 |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7층 셀레나 홀

주최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후원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한국발명진흥회 국제사업팀 유 주 현 계장 T. 02-3459-2795 / E. atom@kipo.org







#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안전행정부  
www.gov30.go.kr



우체국 간 송금 수수료 면제도  
공공주택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대도  
모두 여러분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생활 속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곳 제안하세요! 국민행복제안센터



#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우리가 만듭니다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나의 약속

- ✓ 친구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 ✓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리지 않겠습니다.
- ✓ 친구에게 욕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트리지 않겠습니다.
- ✓ 고민이 있으면 부모님, 선생님과 상의하겠습니다.
- ✓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 ✓ 사이버 상에서 친구의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 ✓ 친구가 나에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시키면 거절하겠습니다.





# 가계부채, 근본적인 체질개선으로 서민층 빚부담 완화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 중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상반기 중, 금리변동 위험도 낮고 금리부담도 줄어드는 다양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상품 출시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중기 분할상환 대출**  
 만기 5년~7년 중기 분할상환대출 4월 출시

**순수고정금리 대출**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상품 6월 출시

**금리상환 대출**  
 변동금리이지만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대출상품 상반기 중 출시

**혼합금리형 대출**  
 대출실행 후 5년간은 고정금리를, 5년 이후에는 변동금리 적용

### 제2금융권 대출,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지원



#### 지원대상

- 제2금융권에서 단기 (만기 5년 이내)·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으며, 대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정상대출 또는 4개월 이내 연체대출
- 1가구 1주택자, 주택가격 3억원 이내
- 해당 주택에 6개월 이내 연체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지원절차

- 4월중 대상자 선정 → 5월중 심사 → 5월말 지원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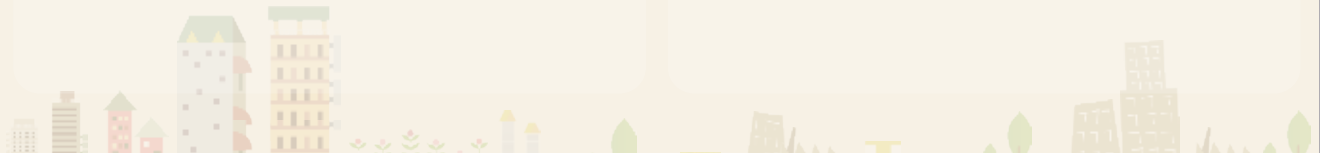
###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소비자고지 강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소비자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가 예상될 경우 금융사에게 원리금상환액 증가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할 의무 부과



### 영세자영업자 바뀐드림론 신청기준 완화

바뀐드림론 지원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기준이 현재 연 20%에서 연 15%이상 대출로 완화돼 5월 중 시행 예정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견인차량을 기다려 보신적 있으신가요?

한국도로공사의 **2504 긴급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합니다.

※ 소형차량 :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 안전지대 :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 영입소, 줄음쉼터 등



견인신청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당신 이 길  
막고 있는 길  
생구 명을 는 길



구급차 길터주기에 동참해 주세요!



6월은 나라사랑 호국보훈의 달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 조국  
함께 만들어야 할  
통일한국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 즐거운 봄 나들이, 식중독 조심하세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나들이철에는  
김밥, 도시락 등 보관·섭취에 신경써야합니다

## 나들이철 식중독 예방 방법

### 도시락 준비부터 보관·운반 및 섭취

#### 도시락 만들기



조리 전·후  
올바른 손 씻기



조리음식 중심부까지 75℃  
1분이상 완전히 익히기



밥과 반찬은 식혀서  
다른 용기에 담기

### 산나물 섭취 바로알기

#### 야생 식물류 함부로 채취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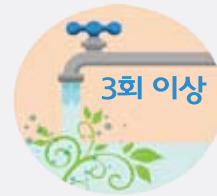


### 안전한 보관·운반 방법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 등은  
온도가 높으므로 아이스박스 등에 보관

### 제대로 된 조리방법으로 산나물 섭취하기



생채로 먹는 달래, 돌나물, 참나물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3회 이상 깨끗이 씻어 조리하기

### 안전한 섭취 요령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 티슈로 닦기



마실 물은  
집에서 미리 준비



두릅, 다래순, 원추리순, 고사리 등은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독성분을 제거 후 섭취

※ 원추리는 자랄수록 독성이 강해지므로 어린순만 섭취 가능



# 여러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타운에 제안하세요!

국민의 아이디어에 실현가능성을 **맞추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주는 창조경제타운!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키웁니다



지금 바로 **창조경제타운**을 검색해 보세요! ▾

검색

**창조경제타운이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이 없거나,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분들에게 멘토링을 연결시켜주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입니다.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와 가족을 위해

# 투표로 응원하세요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5월 30일~31일 사전투표하세요

방법 별도 신고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장소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지방선거 종류

교육감선거 / 시·도지사선거 /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 및 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

###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명선거 홍보대사  
방송인 서경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홍보대사 MBC 아나운서 김소영

[www.kipa.org](http://www.kipa.org)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창조와 도전으로 반짝이는  
'발명특허'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